

삼성 합병 주식 추락 지속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22일 수요일 제3263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2083.62	(+10.31)
코스닥	789.99	(–0.65)
금리(국고채 3년)	1.78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57.30	(+2.30)

책임진다며?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합병 찬성 국민연금, 사흘만에 손실 3361억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 후 주가 연일 하락세
경제개혁연대 "의사결정 압력·로비 정황 의심스러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삼성 편을 든 국부펀드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특정기업 편을 들자고 주식의 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국민의 노후저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원망을 사고 있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했는데, 합병 성사 후 연일 주가가 폭락해 3일만에 3361억원의 평가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자리마저 내놓을 위기에 처했다. 의결권위원회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왜 (의결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국부펀드의 안일한 운영을 지적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투자자는 소중한 노후 자금이 재벌을 먹여살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무지한 투자 손실은 국민들의 불안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SKC&C 합병때완 달리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한 이유를 이례적으로 주총 당일날 발표한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막대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국부펀드가 국민에게 이렇다할 합당한 찬성 이유도 밝히지 않은 것 또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주주총회 당일(17일)에 이어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에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지분 11.61%)이자 제일모직의 3대 주주(5.04%)인 국민연금도 대규모 평가손실을 봤다.

지난 3거래일의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서 1831억원, 제일모직에서 1530억원 등 총 3361억원 평가손실했다. 21일 종가 기준 삼성물산 주가는 5만9200원으로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주식매수청구권(보통주 1주당 5만7234원) 가격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평가손실을 예견한 외부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합병 찬성에 손을 들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합병을 앞두고 국내외 자문기관에서는 잇달아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합병안의 결단을 내린 사람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다. 그는 평소 '투자를 집행한 운용역들이 책임감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수십조원의 자산이 달려 있는 만큼 중요한 결정은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양사 주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급락하며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한 국민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판단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보는 소액주주만 피해를 보고 있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합병 후 동반 급락하면서 '합병이 무산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가 무색해졌다.

또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수익률을 악화시키며 합병에 찬성한 것에 대해 임시 주총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삼성이 승리를 거뒀지만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삼성은 지난 몇 주 동안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설득 작업과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침해 이슈를 부각시키는 작업을 벌였다. 국민연금은 자문 기관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결정은 '경제민주화' 기치를 내걸고 재벌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상반된다"며 "한국 사회가 자유시장에 반(反)하는 행위를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묵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한 배경에 재벌이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재벌은 오히려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국 투자자들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 재벌을 먹여살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21일 삼성찬성 의사결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삼성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삼성 합병 건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의사결정은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에 따른 것임을 의심케 하는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연금이 지난 7월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과 관련하여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와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줄 News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 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을 1분기보다 0.1%포인트 낮은 0.7%로 전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 과제에 대해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올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반면,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파업 만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력에 관심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냉소적이다"며 정치 개입설을 일축했다.

▲ **하나대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21일 개장 무렵부터 장애가 발생, 고객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가 오후 1시20분 복구됐다.

▲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 2016년도 198개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은 35만727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7.4%를 차지하는 24만976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1일 발표했다.

▲ 국세청은 21일 고시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프로그램인 'RCS'의 구매·운용과 규정, 사망 직원 등과 관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각각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 미국 경매에 나왔던 도난 불화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이 환수돼 2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됐다.

'불륜 회원' 한국인도 10만명

애슐리 매디슨 해커집단 "신상정보 공개할수도"
탈퇴자 정보에서 회원 나체사진까지 확보 주장

불륜 만남을 알선하는 글로벌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해킹당했다. 해커 집단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사이트 자체 집계로 전세계적으로 3756만명의 회원이 있어 정보가 실제 공개된다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사이트는 올해 3월 한국에서도 영업을 재개해 상당수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해킹 사태를 비롯해 해킹 문제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오후 애슐리 매디슨의 운영사인 어비드 라이프 미디어(ALM)사는 애슐리 매디슨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집단에 의한 시스템 접근 시도를 최근에 알게 됐다"며 고객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취약지점을 폐쇄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하고 사법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LM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우선 관심사라며 고객이 원하는 신상정보를 삭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이 가장 궁금해 할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임팩트 팀'이라는 이름의 해커집단은 전날 밤 해킹 직후 온라인성명을 내고 요구사항과 해킹 규모를 밝혔다.

임팩트 팀은 "애슐리 매디슨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회원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자매 사이트인 '이스태블리스드 멘'의 폐쇄도 함께 요구했다. 이 자매 사이트는 여대생과 부유한 남성들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다.

해커 집단은 회원 이름, 주소, 금융 기록, 성적 취향, 교류 정보 등은 물론이고 나체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슐리 매디슨의 고객정보 삭제 서비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보를 삭제하려면 19 달러(약 1800원)를 내야 하지만 서비스를 통해도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며 "회원을 탈퇴하고 돈을 지불한 가입자의 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애슐리 매디슨은 기혼자들의 만남을 알선하는 사이트로 2001년 캐나다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3월 처음 진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통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이트를 차단했다. 올해 간통죄 폐지 이후인 3월에 다시 진출해 활동 중이다. 애슐리 매디슨은 접속 차단 기간에만 한국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트럼프를 어찌할꼬"…공화당의 고민 '막말 제조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24%의 지지율로 2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3%)를 두 자릿수 차로 앞섰다. 트럼프는 히스패닉 불법이민자에 대한 비하 발언에 이어 최근에는 참전용사 비하 발언으로 연일 언론에서 핫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 유력주자가 트럼프에 가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후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실적 위해 회계조작… 도시바 전·현직 경영진 '몰락'

도시바 회계부정 사태는 결국 전·현직 경영진이 모두 회계조작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의 제3자위원회는 회계부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기업 최고경영자와 자회사 사장이 외관상으로 당기 이익을 늘리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작으로 부풀려진 총 결산금액은 1562억엔(약 1조4500억원)에 달했다. 도시바는 회계 과정에서 손실 계상을 미루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부풀렸다.

다나카 도시바 사장과 이전 사장인 사사키 노리오 현 부회장, 그리고 이들과 갈등을 빚고 이들이 실적 부풀리기 압박을 받게 했던 니시다 아쓰토시 고문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도시바는 부장 이상 간부직 관여 정도를 충분히 검토해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는 매달 '도전'이라 부르는 수익개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회사 사장 등과 면담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사사키 부회장이 사장을 역임한 2011·2012년에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다. 영업 노력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자 차기 이익을 앞당기고 당기 비용 계상을 미루는 등 회계부정으로 이어졌다. 상명하복의 기업 문화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송병형 기자

'방사능 우려' 수산물 규제에 日 "WTO에 韓 제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을 우려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나선 한국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대신은 21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논의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며 이르면 8월 WTO 제소를 시사했다.

하야시 대신은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8월 말 WTO 분쟁해결기관의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회의에서의 의제 등록 마감이 되는 8월 20일 직전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패널 설치 요청을 시야에 넣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집단지성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 파헤치자"

위키리크스 등 자료제공 사이트 이용 어려워질수도

집단지성으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해킹 전문업체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에 들어간 시민들이 늘고 있다.

21일 '오늘의 유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00GB 전문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토렌트로 1주일동안 받았는데 아직 400GB중 50GB 정도만 받았네요. 엄청 안받아집니다"라고 푸념한다. 다른 누리꾼도 "정말 극악하게 느리네요. 전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이제 300MB 받는 중입니다"라고 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NAS(자료 저장 서버의 일종)를 산 보람이 있네요. 토렌트 받으러 갑니다. NAS 운영하고 계신 분들 힘을 합쳐봐요"라고 화답한다.

이들이 자료 전체를 다운받는 이유는 위키리크스 등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예언하나 해볼게요. 조만간에 워닝(경찰청의 유해사이트 차단)이 뜨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원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 일단 자료를 온전하게 보존해두겠다는 취지다. 최근 해킹팀사에 직접 URL을 요청했던 국정원 직원(아이디 devilangel 1004@gmail.com)의 블로그에 있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워낙 자료량이 큰 탓에 누리꾼들은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의 마그넷 링크와 리눅스, 맥 OS 등이 자료 다운로드가 용이하다는 등의 조언을 주고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400GB라서 64비트버전 토렌트를 써야합니다. 저는 윈도우에서는 계속 실패해서 맥으로 받고 있어요. 피어(자료공유자) 리스트를 보니 대부분 리눅스나 맥이더군요. 그쪽이 잘 받아지는듯합니다"라고 조언한다.

누리꾼들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집단지성을 발휘하자고 말한다. '위키' 같은 협업 틀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해석한 자료를 올리게끔 하자는 것이다. 위키에 부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번역된 문장과 원문을 같이 배치하고 관리자는 아이피를 볼 수 있게 하거나 회원가입을 통해서만 글을 적게 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기업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제공한 검색툴이 자료 검색에 주로 이용됐다. 홈페이지(https://www.wikileaks.org/hackingteam/emails/)에 접속해 △SKA △5163 △Korea △nanatech △devilangel △daum △paran △Samsung 등의 단어를 입력해 국정원 관련 자료를 찾았다. 수신·발신인 메일 주소에 △nanatechheo@daum.net △nanatechhan@paran.com △nanatechp@paran.com △nanatechco@paran.com △develangel1004@gmail.com 등을 써서 검색하기도 했다. 이같이 검색하면 해킹팀사의 국가별 고객 명단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입 가격, 해킹팀이 삼성 갤럭시S4에 게임으로 속여 해킹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시험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 내용이 수백 개씩 이어졌다. 이는 언론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데 공헌했다. 하지만 단편적인 검색결과만 나온다는 한계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리꾼들의 집단지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국정원,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하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에 해킹프로그램인 RCS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로그파일 원본공개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제출요구 자료에는 RCS 구매 관련 자료, 운용 관련 자료, 규정 관련 자료, 중개업체인 나나테크 관련 자료, 사망한 직원 관련 자료, 국정원 프로세스 관련 자료, IP 어드레스 관련 자료 등 총 30개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GOP총기난사' 임 병장, 항소심도 "사형"

군 검찰 "상관 5명 살해·최전방 전력 공백 초래"

지난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로 우리 군의 인권실태를 드러냈던 총기난사의 주인공, 임모(23) 병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병장에 대해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며 "임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병장 변호인측은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병장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지금도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죽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임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임병장은 심문을 받을 때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최후진술문을 읽으면서는 눈물을 흘렸다. 감정을 못이겨 몸을 떨기도 했다.

임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때도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檢 '광고주협회 메트로 명예훼손' 수사 착수

남부지검, 고소인 조사

검찰이 한국광고주협회(회장 이정치)의 메트로신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고소인인 메트로신문측 참고인을 불러 고소 경위와 구체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 수사는 남부지검 형사4부 최수은 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인 메트로신문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피고소인인 광고주협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메트로신문측은 "전경련 예하 단체인 한국광고주협회가 △협회 회원사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른바 유사언론으로 192개 매체가 선정됐다고 하면서 유독 메트로신문만 실명 공개한 점 △애초 설문조사에서는 유사언론이나 사이비언론이라는 표현이 없었음에도 메트로신문이 이에 해당한다고 왜곡한 점 △삼성, 신세계, 현대차 등 재벌 기업의 준법의식 결여 등을 지적한 비판기사를 '광고수주를 위한 악성기사'로 매도한 점 △기관지인 '반론보도닷컴'에 20여건의 악의적 기사를 게시해 메트로신문을 비방하고 사이비언론으로 몰아 재벌 비판 보도를 봉쇄하려고 한 점 등을 들어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은 한국광고주협회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연미란 기자 actor@

복지위, 메르스 병원 보상액 5000억 의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병원에 대한 지원예산 5000억원이 소관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가 편성한 1000억원보다 4000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 외에도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과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비 101억3000만원도 증액됐고, 야당이 주장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안도 여야 합의로 2140억원이 반영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이 바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과연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그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특별법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복지위 소관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윤정원 기자

김현웅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최선다할 것”

범죄 취약지구 개선나서 “출소자 철저히 관리하겠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21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매교동 가족여성회관에서 남경필 경기도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과 범죄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이달 9일 취임한 김 장관은 이날 수원과 안산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법무부가 범죄를 줄이고자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을 선정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인가운데 올해 대상지에 포함된 수원과 안산이 첫 방문지가 된 것이다.

법무부는 “김 장관이 범죄 취약지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첫 현장 방문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원 팔달구에서는 '오원춘 사건', '박춘풍 사건' 등 잔혹한 범죄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남 지사, 염 시장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군 흉악범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외국인 관련 범죄가 잦은 지역인 안산 단원구 원곡동도 찾아 제종길 안산시장, 내·외국인 주민대표 등과 함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지역은 다문화특구로, 거주자의 약 70%가 외국인이다.

사업 현장을 점검한 김 장관은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에 대한 신뢰는 나라의 기틀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남경필 지사에게 범죄예방사업 후원금으로 5억원을, 민영진 KT&G 대표이사는 염태영 시장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후원금은 경기도,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토론회장에 놓여 있는 기금운용공사 설립 반대 피켓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태완이법’ 법사위 법안 심사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외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해당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이홍원 기자 hong@

韓 근로자 고용불안 OCED 중 가장 높다

노사정위, 토론회 개최

‘양적 유연화’ 지양하고 ‘기능적 유연화’ 우선돼야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속연수 또한 5.6년으로 가장 짧았다. 근로자 해고요건을 완화시키는 '양적 유연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평가와 유연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토론회 주제발표에 따르면 OECD 13개 회원국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5.6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 근로자는 6.7년, 여성은 4.3년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12.2년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른 나라의 근속기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었다.

금 교수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50세 전후 명예퇴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전체 근로자의 60%를 차지하는 영세 사업장(30인 미만)의 잦은 파산·폐업 등을 고용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다.

금 교수는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만큼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양적 유연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적 유연화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일반해고'처럼 근로자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노동시장 원·하청 구조의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신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전환배치 확대 등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기능적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세월호 특조위, 논란 공무원 전원 파견 요청

정부, 특조위 예산 배정안해 “간섭 우려되도 활동 수행”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간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 전원 파견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등 공무원이 이들 직위를 맡으면 정부가 특조위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1일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지원실장은 애초 정부가 내놓았던 시행령 원안에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것이 최종 공포된 시행령에서 명칭과 일부 권한만 조정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진상 규명의 핵심 역할을 맡을 조사1과장도 정부 파견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왜곡된 시행령으로 정부 간섭이 우려되더라도 이를 헤쳐나가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려 한다”며 “특조위 독립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정부가 이들 공무원 파견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특조위에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새로 뽑은 별정직 공무원 31명이 오는 27일부터 출근할 예정이지만 이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조위 측은 정부 수립 이래 이처럼 장기간 정부기관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업무 개시조차 못 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서이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박지만 "정윤회 문건 전달 받았다"

'靑문건유출' 증인 출석

"특이한 문구 있어 본 기억 받는 시기·경위 기억 안나"

"정치 권력엔 관심 없어… 날 이용한다는 건 말 안돼"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박지만(57·사진) EG회장이 일명 '정윤회 문건'을 전달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의 10차 공판에서 박 회장이 4차례의 출석 거부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알게 된 경위를 비롯, 이들로부터 문건을 전달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을 받았다.

박 회장은 증인심문에서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전달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박 회장은 "특이한 문구가 있어 그걸(정윤회 문건) 본 기억이 있다"며 "정씨가 미행 사건과 관련해 (미행 지시자로) 지목을 받은 적이 있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준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은 문건을 건네받은 시기와 경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또 박 회장은 청와대 문건으로 지목된 17건의 문건 중 대부분에 대해 "전달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자신 부부와 관련된 내용의 문건 1~2건을 비서인 전모씨로부터 받아 읽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A4용지에 내용을 적은 정도"라며 청와대의 공식 문건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한편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는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선 "추측일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전 원래 정치권력에 관심도 없고 심하게 말하면 그런 것(권력)에 냉소적"이라며 "그걸 잘 아는 분이 저를 이용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착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 고시자 동향보고' 등 문건이 박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이중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10건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들 문건 전달에 관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에 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박 회장이 거듭 출석을 거부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4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구인장 발부 직후인 지난 16일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에이지 오브 태극(Age of Taegeuk) 개막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를 소재로 가장 한국적이고 환상적인 판타지 넌버벌 퍼포먼스 <THE 태권포스 –에이지 오브 태극(Age of Taegeuk)>이 지난 17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에서 개막했다. 이 퍼포먼스는 8월 30일까지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관람 할 수 있다. /뉴시스

경찰청,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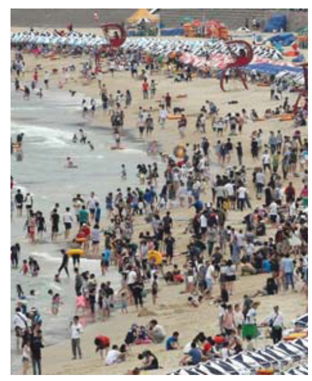
여가부와 손잡고 몰카촬영·성매매알선 등 집중단속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대천, 해운대, 강릉 해수욕장 일대에서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수욕장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해수욕장 주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여가부는 단속에 앞서 지역 경찰과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나눠줄 계획이다.

또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폭력피해 여성 상담·구조반을 가동, 피해자 구조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으면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홍원 기자

방역당국, 메르스 종식 WHO 기준따라 결정

일러도 내달 중순 이후

방역당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종식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국제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WHO의 기준에 따라 최종 환자의 메르스 완쾌 시점 28일 후에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종식일은 일러도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4명 가운데 메르스 양성을 보이는 환자는 1명이다.

현재 양성을 나타내는 환자가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라고 가정한다면, 이 환자의 완쾌 시점으로부터 28일 후가 종식 선언일이 된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 국면으로 접어들자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내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때에 맞춰 현재 '심각 수준의 주의 단계'를 통상적인 '주의 단계'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예산결산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김서이 기자 redsun217@

'224억 배임 혐의'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구속영장

'224억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부실투자했다가 12억원의 손해를 공사 측에 안긴 혐의도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檢, 민영진 KT&G 사장 횡령 의혹 수사착수

민영진 KT&G 사장이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최근 민 사장이 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회사의 재무적 흐름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KT&G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2011년 소망화장품, 바이오벤처기업인 머젠스(현 KT&G 생명과학) 등을 잇달아 인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KT&G에 대한 기획(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횡령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나오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이 기자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식'도 허용

공자위 민영화 추진방향 발표

지분 48.07% 투트랙 매각
투자자 1인당 4~10%까지

경영정상화 MOU 대폭개선
경영 자율성 최대한 보장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에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 허용했다. 매각 물량은 30% 이상이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예보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 민영화 재시동, 가격↓ 투자매력↑

매각 대상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51.04%) 중 콜옵션 행사 대비분(2.97%)을 제외한 지분 48.07%다.

매각은 투트랙구조로 지배·과점주주군을 형성, 30~40% 매각한 후 잔여지분을 최대 18.07%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민영화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추가로 허용한 점이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소수의 주요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형태다.

그간 정부는 4차례에 걸쳐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경영권지분에 대한 매각 수요가 부족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시장여건을 감안,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공론화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조기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기 보유중인 물량을 포함해 최소 4%, 최대 10%로 설정했다.

◆ 통매각 방식 버렸다…"다각적인 방법 시도·자율성 보장"

잔여지분 매각은 민영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upside potential)을 향유하기 위해 당분간 보유하되,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봐가며 매각키로 했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은행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했다"며 "현재 확인된 투자 수요만으로는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에 어렵지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개선키로 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원점(Zero-base)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각 전이라도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있도록 개선하고, 과점주주 매각성공 등 사실상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MOU를 즉시 해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기 민영화를 위해서는 우리은행의 기업가치(주가) 제고가 관건"이라며 "우리은행의 주가나 PBR(0.35)은 시중은행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우리은행 전경.



2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권영진 대구시장,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C-Lab 벤처기업들의 운영 현황과 창업지원 성과를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경북·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성과·과제 의견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이후 첫 행보로 21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삼성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인력, 지자체 지원 인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지원사업, 경북지역 고택명품화와 창조농업 지원사업 등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팩토리는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생산관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기반 생산 공정 자동화, 지능형 초정밀가공, 공정 시뮬레이션 기법 등 첨단 제조 기술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부회장은 이어 오후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C-Lab 벤처기업들의 운영 현황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성과를 둘러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삼성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우수 창업·벤처기업 육성프로그램인 C-Lab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은 창업·벤처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삼성직원을 통한 경영·기술 멘토링 및 창업지원 교육, 국내외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한편 삼성은 대구 옛 제일모직부지에 약 900억원을 투자해 내년 12월까지 복합 창조경제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

'채용 갑질' 위메프, 전 직원 스톡옵션 제공

정규직 800명 우선 배분
비정규직은 3년 후 지급
논란된 직원 11명도 포함

지난해 12월 수습 채용 갑질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정규직 전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나눠줬다.

21일 위메프 관계자는 "청년 벤처답게 모든 직원이 고생한 댓가를 통 크게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6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1200여 명의 전 사우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은 관련 법규상 해당이 안돼 정규직 전환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번에 혜택을 받은 직원은 정규직 약 800명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은 입사 3년 후 법률로 지급이 가능해 지면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채용 논란을 빚은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도 스톡옵션 배분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위메프 측은 개별 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나 배정 수량 등은 밝히지 않았다.

스톡옵션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이 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하며 일정 기간 이후 자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위메프 스톡옵션의 매수 약정 가격은 1주당 5000원이며 행사기간은 3~5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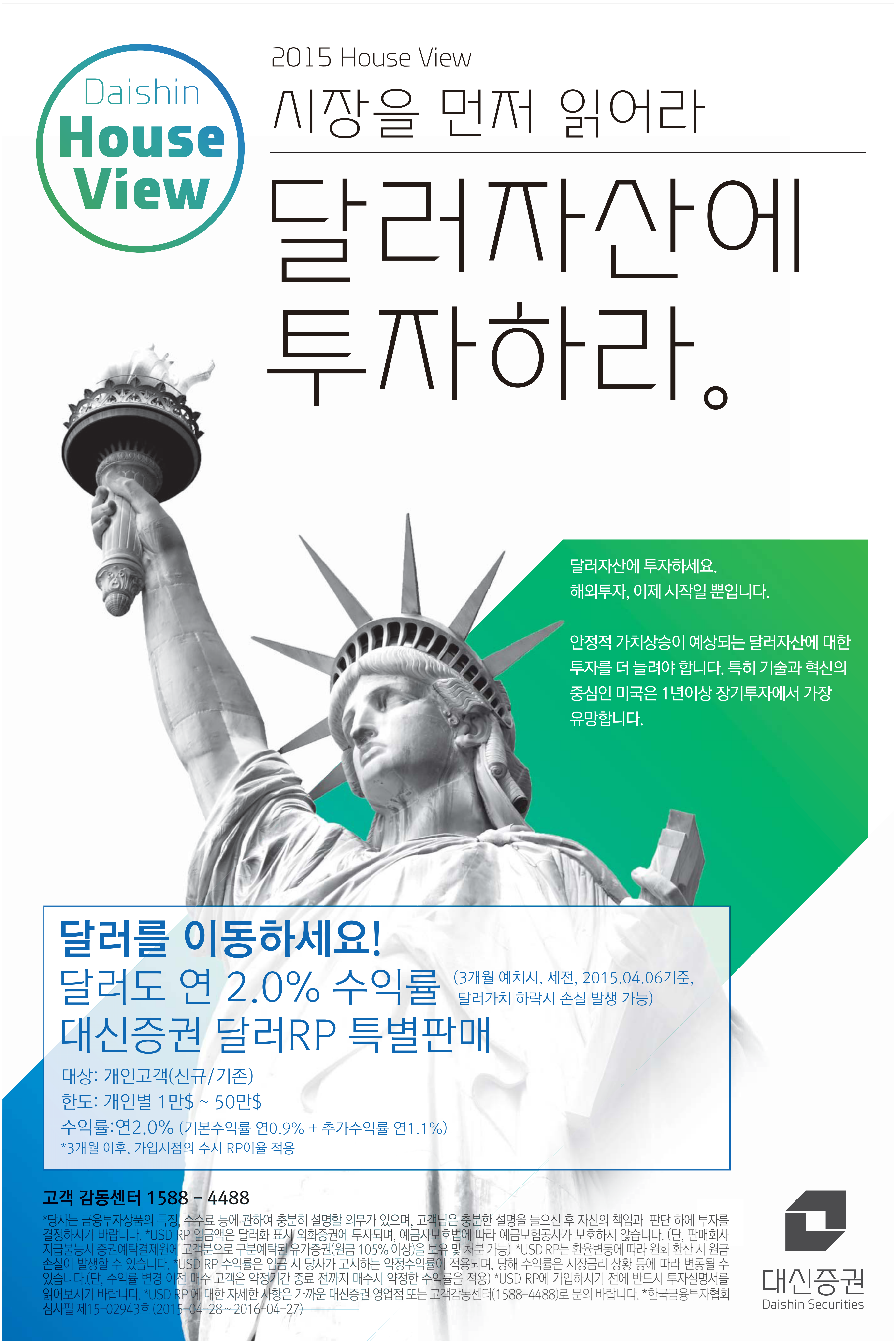
지난 2월 위메프 박은상 대표이사는 '채용 갑질'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연합뉴스

벤처기업이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배분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보통 스톡옵션은 창업 공신 또는 영입 고위 임원에게 주어진다. 일반 직원에게는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초 '채용 갑질'로 논란을 빚었던 위메프가 대규모 스톡옵션 배분으로 이미지 쇄신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례가 드문 대규모 스톡옵션 분배는 직원들 사기 진작에 충분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오른 11명에게 현장 테스트 평가라며 2주 동안 일당 5만원을 주고 계약을 따오게 하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시켰다. 당시 계약을 따오며 실적을 올린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채용 기준 미흡으로 11명 전부를 불합격 처리하며 논란이 일었다. 위메프는 뒤늦게 11명 전원을 합격처리하고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는 지난 2월 공개적인 사과까지 했었다.

/김성현 기자 minus@



2015 House View
Daishin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亞 'K뷰티 열풍'… 화장품株 하반기 날개달까

| 마켓인사이트 |

화장품업계 기업공개 잇따라 관련주 시총 상위 대거 진입


인천공항 면세점 뷰티 매장. /뉴시스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K-뷰티' 열풍이 불면서 화장품주가 다시 부활의 날개짓을 펼치고 있다.

화장품주는 메르스 여파로 한동안 주춤했었다. 그러나 메르스가 진정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대거 진입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올 들어 (7월 16일 기준) 시가총액 10위권으로 진입한 종목은 바이로메드, 로엔, 산성앨엔에스, 씨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성앨엔에스는 화장품 관련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화장품업종인 아모레퍼시픽이 올 들어 시가총액 1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지난해 말 이후 제일모직,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위권 이내로 새로 진입했지만 포스코, 네이버, 현대 모비스는 시총 순위 10위권 밖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화장품주가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자 '차화정'이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지난 2009년 증시를 뜨겁게 달군 차화정이 '자동차' '화학' '정유'였다면 올해는 '차이나' '화장품' '정보채널'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메르스 악재에도 2분기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연결기준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1647억원과 206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5%와 36.5% 증가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외적 변수에도 국내 화장품 사업은 16.1%의 우호적인 외형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외 사업 매출은 2분기에도 44% 증가해 외형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함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출점이 올해를 기점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지영 IBK투자증권은 "중국의 한국 화장품 소비 가운데 스킨케어 비중은 60%로 추정된다"며 "향후 품목별 소비 증가와 동시에 온라인 채널 확대를 고려할 때 중국인의 K-뷰티 소비는 새로운 시장 형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소비자가 한국 화장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아시아인 맞춤형 카테고리(쿠션파운데이션, 한방재료, 제주마케팅) 탄생과 새로운 트렌드에 전문 제조업자 개발생산, 주문자상표부착(OEM) 업체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연구개발(R&D)과 마케팅에서도 속도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업체들의 기업공개(IPO)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저가 화장품 브랜드숍 업체들의 IPO 열풍이 거세다. 지난 10일 상장한 토니모리에 이어 네이처리퍼블릭, 잇츠스킨, 에프엔코 등도 IPO를 준비 중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대신증권을 IPO 주관사로 정하고 올해 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회사는 올해 약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중국에서 '달팽이 크림'으로 히트를 친 잇츠스킨과 '바닐라코' 브랜드로 알려진 에프엔코 등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장품 업계 상장이 잇따르는 것은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 영향력이 가장 컸다"면서 "뷰티열기가 뜨거울 때 증시에 입성해야 가치를 높게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사흘만에 반등… 2080 회복

자동차·조선株 깜짝 반등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해 2080선을 회복한 21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3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31포인트(0.50%) 오른 2083.62로 마감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각각 950억원, 394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은 1268억원어치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4.29%), 기계(1.9%), 은행(1.56%), 철강·금속(1.01%), 화학(0.92%) 등이 올랐다. 반면 의료정밀(-2.15%), 의약품(-1.36%), 섬유의복(-1.27%), 통신업(-1.17%) 등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는 LG화학이 2분기 실적 기대감에 7.9% 급등했고 현대차(7.26%), 현대모비스(2.1%), NAVER(1.72%), 신한지주(1.14%) 등이 상승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0.94% 하락했고 SK텔레콤(-2.4%), 제일모직(-2%), 아모레퍼시픽(-1.71%), 삼성생명(-0.49%) 등은 하락했다.

특히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던 조선주는 이날 일제히 반등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일 대비 14.36% 급등했고, 현대중공업(6.11%), 삼성중공업(3.57%), 현대미포조선(2.42%)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자동차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최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대차(7.26%), 기아차(3.06%), 현대모비스(2.1%)가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닥은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5포인트(0.08%) 하락한 781.99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713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819억원, 6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동서(7.65%), 메디톡스(1.69%), 이오테크닉스(2.00%), 씨젠(2.17%) 등이 상승했다. 반면 셀트리온(-1.10%), 다음카카오(-3.39%), CJ E&M(-1.93%), 웹젠(-6.35%) 등이 하락했다.

/김민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외국인 매도 공세… 주가 '내리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에서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6만원 방어선이 무너지고 주식매수청구가격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2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각각 212억6000만원, 137억200만원어치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합병 통과 당일인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삼성물산 주식 1613억4600만원, 제일모직 주식 2060억5900만원 어치씩을 내다 팔았다.

이날 기관은 삼성물산 주식 22억3900만원 어치를 팔아치운 반면 제일모직은 2억100만원 어치 매수해 1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주가는 6만원 방어선이 무너졌다.

이날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1.3%(800원) 떨어진 5만9200원에 장을 마쳤다. 주주총회 전날인 16일 6만9300원을 기록했던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 결정 후 14.6% 하락했다. 제일모직도 2%(3500원) 내린 17만1500원을 기록해 사흘 만에 11.6% 하락했다.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1주당 주식 매수청구가격은 5만7234원이다.

/김보배 기자 bobae@

LGD, '모바일 패널' 효과 톡톡… 하반기 더 좋다

2Q 영업이익, 기대치 하회 전망… 3Q 본격적인 '실적 개선'
하반기 업황 악화 우려?… 아이폰 수요 강세로 '흑자 유지'

최근 저점을 찍은 LG디스플레이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에 주가도 연일 약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하반기 업황 악화 속에서도 LG디스플레이는 모바일 패널 등에서 실적을 거둬 선방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는 전 거래일 대비 1.07%(250원) 오른 2만3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LG디스플레이는 이달 들어서만 주당 2000원 넘게 빠졌고 20일에는 장중 한때 2만285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가 3거래일 만에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최근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은 2분기 실적이 부진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24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LG디스플레이의 매출액 전망치는 6조7691억원, 영업이익은 4562억원이다.

증권가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도 기대치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LCD TV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8.8% 증가한 6810만대로, 전분기 대비 2.9% 증가한 반면 2분기 전세계 LCD TV출하량은 4880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TV업체들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수요부진, 중국과 중남미지역의 경기부진 등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LCD TV 재고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하반기 업황 역시 부정적이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애플이 출시할 아이폰6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면서 중소형 패널 분야에서 선방이 예상된다. 또 LG디스플레이는 애플 스마트워치에도 패널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보배 기자

"대우조선 부실, 산은이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금융노조 '금융정책 및 현안 제안서' 금융위에 전달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KDB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김문호 위원장이 지난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정책 및 현안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STX팬오션 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듯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 강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서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방식보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민간은행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정상화되도록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2분기 대우조선에 최대 3조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전망되는데다 워크아웃 추진설과 부실은폐 의혹이 나오며 은행권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대우조선은 당장 오는 23일 20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11월30일에는 30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우려 대상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확정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액은 지난 9일 기준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 위험노출액을 보면 수출입은행이 12조5000억원, 산업은행과 농협이 각각 4조1000억원, 1조6000억원이다.

이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총 1조95억원, 국민은행 8966억5000만원, 우리은행 5468억6000만원, 신한은행 4087억5000만원 순으로 높다.

결국 구조조정 추진 여부와 은행권 충당금 부담 확대 가능성이 금융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대 신규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증자와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신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2일부터 수출입은행과 대우조선, 국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31.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조기통합에 합의한 외환은행과 관련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새로운 통합 합의도 사회적 합의인 만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스터리쇼핑 제도 철폐와 금감원 악성민원 관리 전담팀 설치, 정부가 추진 중인 8.15 특사에 단순 실수로 징계를 받은 금융노동자들에 대한 사면 등을 제안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동양생명, 1분기 이어 2분기 실적도 '최대치' 전망

당기순익 481억원 예상 시장 예상치 웃돌 듯

중국 안방(安邦)보험에 인수된 동양생명이 1분기 호실적에 이어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생명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45%(750원) 오른 1만4500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34.9% 뛰며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보험손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반기 순이익은 연간으로 제시한 예상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올해와 내년 순이익 예상치를 각각 17.4%, 4.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앞서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7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당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1조1744억원, 영업이익은 95.7% 늘어난 1042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실적 전망도 밝다.

동양생명의 2분기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58.1% 증가한 481억원, 상반기 순이익은 125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양생명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시장 예상치(444억원)를 8% 웃도는 수준"이라며 "1분기 채권매각익(484억원)을 제외하면 전분기 대비 이익은 약 2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삼성·한화생명과 마찬가지로 손해율 안정화에 따른 사차익 증가가 이익 개선의 주요한 요인"이라며 "게다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도 낮아져 이자율차가 개선되는 것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인수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안방보험은 생명보험과 자산관리 등 종합보험과 금융사업을 하는 중국 내 5위권, 세계 10위권 수준의 대형 종합 보험사로 자산규모는 7000억위안(약 121조원)이다.

안방보험이 인수한 동양생명은 국내 8위의 중상위권 생명보험사로 고객 340만명을 보유 중이며 총 자산은 2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총자산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20조4257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 연구원은 "최대주주로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중국 안방보험의 전략적 방향이 중장기 투자의 포인트"라며 "보험 영업 부문에서의 전략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유가증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포트폴리오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7000원을 유지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경북 칠곡군에 12번째 국공립 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식에 참석한 주요관계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생보재단 제공

'경북 칠곡 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

생보재단 건립 12호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일 칠곡군 지천면 신리에 경북칠곡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경북칠곡생명보험어린이집(12호점)은 50명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379.74㎡,지상1층)로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만들어진다.

생보재단에서 건립하는 생명보험어린이집은 안전성과 자연친화적인 면에서 우수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어린이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석쟁 생보재단 상임이사는 "도심지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경북 칠곡에 안전하고 우수한 환경의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칠곡 어린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 어린이집을 통해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애보장' 정신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사업이 발전되고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위비뱅크로 '여행자보험' 가입시 최대 80% 환율우대"

우리銀, 모바일상품 출시 이벤트

우리은행은 21일 모바일 여행자보험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31일까지 위비뱅크를 통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최대 80% 환율우대 쿠폰과 인천,김포, 김해 3개 공항에 위치한 에이스보험 부스를 통해 여행용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는 사물인터넷의 핵심기술인 '우리 비콘(Beacon)서비스'가 적용돼 위비 여행자보험 가입안내와 환전소 위치안내, 세계날씨 등 여행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위비뱅크를 통해 판매되는 모바일 보험은 국내외 여행자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총 4가지로 구성됐다. 이는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스마트폰으로 5분 이내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또 계약현황 조회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앞으로도 기존은행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신한銀, 이동점포 '뱅버드' 운영

신한은행은 여름 휴가철 고객의 금융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 '뱅버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뱅버드는 내달 7일까지 동해안 망상해수욕장에서 문을 연다.

고객은 현금지급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상가 대상으로 잔돈교환 서비스 업무도 수행한다. 또 3명의 직원이 상주해 간편금융 업무를 처리하며 고객 사은행사도 실시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영업시간 전후에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과 해수욕장 정화 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백아란 기자

국내 건설업계 '이란·쿠바' 대응책 마련 시급

경제제재 해제에 진출길 활짝
국토부 등 정부도 지원 나서
中 자금·美 기술 '넘어야할 산'

올해 해외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에 이란과 쿠바 정세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업체에 맞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핵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류제이 중국대사(왼쪽)와 프랑수아 델라트르 프랑스대사가 이란 핵 합의 결의안에 거수로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주재 쿠바대사관이 20일(현지시간) 54년 만에 워싱턴DC에 다시 개설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가운데 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건설업계가 이번 협상 타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란이 그간 대형 공사의 주요 발주처였기 때문이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10년 7월 미국의 제재 전까지 매년 300~400억 달러의 공사를 발주했다.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는 제재 전까지 이란에서 87곳에서 119억4126만 달러의 수주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이어 6번째 최대 수주액이다. 하지만 제재 이후에는 사실상 수주액이 1억 달러에도 못미쳤다.

이에 지난 1975년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이란에 진출한 대림산업을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건설사의 이란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도 조만간 추진된다.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 건설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이란 경제 제재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대외경제 장관회의 등을 통해 법제도와 정세 등 현지 정보 전달과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추진 중인 쿠바도 주목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대국 수도에 있는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신은 건설업종을 여행업에 이어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고 있다. 수십년간 경제 제재로 발주하지 못한 국가 주요시설과 발전시설 공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내 기업이 이란과 쿠바의 정세변화 혜택을 보기 위한 대응전략이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 중국의 자금력과 미국, 유럽 등의 기술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벌여와 이란 국민들과 정부의 신뢰도 높여왔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국은 제재 기간에도 지속적인 영업을 통해 대부분의 현지 발주 물량을 소화해왔다"면서 "반면 국내업체는 거의 대부분 철수하면서 회사별로 2~3명의 직원만 상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그간 이란 당국과의 신뢰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지시장을 공략해왔고 미국과 유럽도 선진 기술을 활용한 현지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업체가 이에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쿠바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국내 기업이 현지 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전무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

그간 국내 업체 중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지난 2009년 현지와 관련된 종합설계(EPC)의 기본 콘셉트설계에 참여한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지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금액도 246만 달러에 불과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쿠바의 경우 국내 기업이 현지 공사를 직접 추진한 경험이 전무하고 대형발주도 그간 없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전무하다"며 "지리상 이점이 있는 미국과 유럽업체에 비해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금호산업 건설사업부는 지난 20일 금호아시아나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홍보대사 1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홍보대사 12기에 최종 선발된 14명의 대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산업 제공

"취업·봉사활동 두 토끼 잡아요"

금호산업
12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
미션 완료땐 취업 인센티브

금호산업 건설사업부(이하 금호건설)는 지난 20일 금호아시아나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홍보대사 1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선발된 14명의 홍보대사는 앞으로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금호건설 홍보를 맡게 된다.

지난 2009년 시작한 금호건설 대학생 홍보대사는 공사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건설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 활동을 수료한 뒤 금호건설에 입사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회사 업무의 노하우를 듣고 배우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약 8주간의 미션 수행을 완료하고 수료식을 마친 대학생들에게는 금호건설 입사 지원 시 취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12기 금호건설 대학생 홍보대사로 선정된 김미송(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학생은 "홍보대사는 취업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방학기간 필수 지원 코스"라며 "아름다운 기업 금호건설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수도권 동북부, 하반기 8000가구 쏟아진다

서울진입 교통망 개선 효과
실수요자·투자자에게 인기

지하철 연장 등 서울 진입 교통망이 개선되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 최근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대거 신규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분양한 23개 단지 중 21곳이 순위 내 청약을 마쳤다. 이들 지역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8000여 가구가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오는 8월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를 분양한다. 경기도 양주신도시 A-11(2)블록에 있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74~84㎡ 761가구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신도시 내 시범지구에 자리하고 있어 중심상업시설과 복합시설 등 편의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호수공원도 인근에 있어 주거 쾌적성이 우수하다.

연내 수도권 동북부 주요 분양예정 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	분양시기	시공사
양주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76~84	761	8월	대림산업
구리시	구리갈매 아이파크	84~110	1196	9월	현대산업개발
의정부시	의정부 민락2지구 우미린	84	732	9월	우미건설
남양주시	남양주 마석 푸르지오	59~84	620	8월	대우건설
	다산진건 유승한내들 1차	74~84	646	9월	유승종합건설
	진건 반도유보라	74~84	1085	10월	반도건설
	다산진건 아이파크	113~126	467	10월	현대산업개발
	다산진건 한양수자인	60~85	650	10월	한양건설
하남시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73~101	487	7월	포스코건설
하남시	하남미사 신안인스빌	미정	735	하반기	신안
광주시	광주 태전 자이	59~84	668	10월	GS건설

자료 : 각 업체

9월에는 우미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B-13블록에서 '의정부 민락2지구 우미린'(전용면적 84㎡ 총 732가구)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맞은편에 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하고 코스트코,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 굵직한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실제 이 같은 관심은 우수한 청약결과로 이어져 올 상반기 이들 지역 일대에서 분양한 23개 단지 중 21곳이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극동건설 매각 재추진 채권단, 이달 중 공고

극동건설이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지난주 열린 채권단 회의에서 이달 내로 재매각 공고를 내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매각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극동건설은 국내 주택시장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지난 2012년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8월 법정관리 졸업 후 인수·합병(M&A)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지난 8일 입찰에서 인수의지를 내비친 3개 업체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본입찰을 유찰시켰다. /김형석 기자

LCD 패널값 폭락 조짐… 삼성-LG '비상'

하반기 中 업체 생산량 확대
글로벌 경기 위축 수요부진
양사 디스플레이 수익 발목


삼성전자 직원이 모듈라인에서 LCD 패널을 검사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수익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판매가의 하락폭 확대가 전망되면서다.

21일 시장조사기관 위츠뷰에 따르면 7월 하반월 LCD 패널 가격은 42인치를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LCD 패널 평균 가격은 이달 상반월 대비 1.4% 떨어진 90.5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TV용 패널과 모니터·노트북용 패널 가격도 모두 하락세를 지속했다.

하반기에는 LCD 패널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LCD패널 생산업체의 물량 확대가 본격화 될 예정인데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요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판매 부진 압박을 받고 있는 주요 TV세트 업체들은 잇달아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TV 세트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TV용 패널도 가격도 하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모니터·노트북용 패널 역시 수요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운영체제(OS) 윈도우즈10과 인텔의 6세대 중앙처리장치(CPU) 스카이레이크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나 관련 업계는 정보기술(IT) 제품용 패널 추가 수요 발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장 환경 악화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사가 대만·중국 경쟁 업체에 비해 대면적·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지만 지속적인 LCD패널 판매가 하락은 결국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가격하락 방어를 위해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의 가동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관계자는 "LCD 패널 가격은 항상 떨어져 왔고, 속도의 차이지 더 내려갈 갈 것"이라며 "패널 업체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생산원가 절감과 신제품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반도체 직업병 논란, 8년 만에 해결책 나오나

내일 조정위 권고안 공개 진행

삼성전자 공장에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가 논란이 된 지 8년여 만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전망이다.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조정권고안 제시를 공개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등은 삼성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김지형 변호사를 조정위원장으로 선임한 이후 12월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정위는 이후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과 첫 번째 조정기일을 가졌다. 이후 올해 1월 16일 2차 공개 조정기일에서 각 주체별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하는 청문절차를 진행, 이후 1월 말과 3월 초에 각각 조정위와의 개별 면담이 이뤄졌다.

이후 조정위와 각 주체들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 폭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키웠다.

이번 조정안은 협상 3주체 간 의견이 엇갈렸던 보상 대상과 범위, 화학물질 정보공개 등을 중심으로 한 재발방지책 등에서 주체별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로 조율, 반영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사회봉사단 박근희 부회장(가운데)이 삼성임직원 봉사자들과 이재민을 위한 응급구호품 세트를 포장하고 있다. /삼성 제공

삼성, 적십자에 구호품 5억원어치 전달

삼성그룹이 대한적십자사에 긴급구호품 5억원어치를 전달했다.

삼성은 21일 서울 양천구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종합센터에서 응급구호품 전달식을 갖고 태풍, 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필요한 응급구호품 5억원어치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응급구호품은 담요, 구호 의류, 비누, 화장지, 치약, 수건 등 총 14종으로 구성되어 침수와 화재 등 갑작스런 재난시 이재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다.

이번에 제작된 응급구호품은 총 5911세트로 1만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대한적십자사 14개 지사에 분산 비축되어 재난 발생시 지급된다.

전달식에는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과 삼성 임직원, 적십자 봉사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한다면 설령 재난이 발생해도 피해와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응급구호품이 재난시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빨래건조·결로방지… 계절가전서 '필수가전' 진화

LG전자
17ℓ 휘센 인버터 제습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른 장마가 계속되면서 '여름=장마철'이라는 공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 때문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습기를 사용하면 언제나 실내습도를 40~60%로 적정하게 조절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빨래 건조, 신발장·옷장 속 습기 제거, 결로현상 방지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곳이 많다.

LG전자의 '17ℓ 휘센 인버터 제습기'는 이같은 기후 변화를 대비해 기존 인버터 제품 보다 용량을 2ℓ 늘리고 제습 속도도 높였다. 자동으로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제습 기능부터 덥고 습한 실내를 빠르게 제습하는 쾌속 제습 기능, 젖은 신발과 옷장 틈새를 건조하는 집중 건조 등 다양한 제습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투명한 재질의 물통을 적용해 제습량을 항상 체크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360도 방향 전환이 가능한 바퀴와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제품을 옮길 수 있도록 제품 상단에 이지 핸들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신경을 썼다.

LG 전자 관계자는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고자 제습기를 활용하는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계절가전에서 필수가전으로 진화하고 있는 LG 휘센 인버터 제습기는 제습은 물론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LG '로보킹 터보 플러스' 인버터 모터 10년 무상 보증


21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LG전자 모델이 로보킹 터보(왼쪽)와 로보킹 터보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는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로보킹 터보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홈뷰, 홈가드 등 스마트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 성능도 향상했다.

LG전자는 로보킹에 탑재된 스마트 인버터 모터를 10년간 무상으로 보증한다.

LG전자는 로보킹 터보도 출시했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로보킹 터보 플러스가 109만원, 로보킹 터보는 84만9000원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

삼성 '갤럭시 J5' 출시… 출고가 29만7000원



삼성전자는 합리적인 가격과 탄탄한 스펙을 갖춘 스마트폰 '갤럭시 J5'(사진)를 22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J5'는 전면 500만 화소 카메라와 전면 LED 플래시, 5인치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또한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1.5GB 램(RAM), 16GB 내장 메모리, 2600mAh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지상파 DMB도 지원한다.

'갤럭시 J5'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자급제 폰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29만 7000원이다. /임은정 기자

실적 부진 대우조선, 오늘부터 실사 착수

올 2분기 3조원규모 손실 예상
채권단, 대대적 사업 매각 전망

대우조선해양이 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손실을 메우기 위한 채권단 실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분기 실적과 실사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사업 매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2일부터 2~3개월간의 일정으로 대우조선을 포함해 국내외 자회사 실사를 진행한다.

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 서울본사와 옥포조선소를 면밀하게 조사해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또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해외 계열사도 실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997년 대우조선이 인수한 루마니아의 망갈리아 조선소는 지난해 1774억원 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7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LNG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미국의 풍력발전사 드윈드 역시 지난해 83억원의 손실을 냈고 올해 1분기에도 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캐나다 풍력발전설비사 트렌튼은 지난해 73억원, 올해 1분기 18억원의 손실을 거뒀다.

이밖에도 대우조선은 지난해부터 매각 추진 중인 서울 당산동 소재의 빌딩을 비롯한 부동산도 정리할 방침이다.

대우조선 자회사 웰리브가 소유한 서울 신문로 빌딩, 두산엔진 지분 560만주 등도 매각 대상에 올랐다.

이미 골프장과 연수원을 보유한 FLC에 대해서는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채권단이 실사를 조속히 완료해 대우조선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호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의 부실이 민간은행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정상화되도록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방식보다는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매각과정에서 대우조선 인력이 이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전날 담화문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부실계열사·부동산·비업무성 자산 등을 매각하고 인력재배치·순환보직 같은 질적 구조조정이 골자다.

담화문 발표 후 다수의 언론이 인원감축이 있을 것이란 보도를 내보내면서 이날 대우조선은 인원감축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부 실사결과 대우조선에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000년 구조조정 여파로 인력이 부족하다. 인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조현우 대우조선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대우조선으로부터 인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확답을 이날을 포함해 정 사장 취임 때부터 재차 확인했다"며 "3조원 규모의 손실 원인이 나와야 알겠지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만약 인원을 감축하면 즉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올 여름엔 현대차 몰아볼까?

전국 28곳서 시승이벤트

현대자동차가 여름휴가 기간 전 차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승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이달 31일부터 8월 4일까지 4박 5일간 전국 28개 현대자동차 시승센터의 총 376대 시승차량 중 1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승 대상 차종은 엑센트부터 에쿠스까지 각 시승센터가 보유한 현대차의 모든 차종이다.

센터별 시승가능 차량은 다를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21일부터 28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시승센터와 차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현대차는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376명을 선정해 29일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이 시승 후기를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릴 경우, 우수 후기를 선정해 ▲i20 WRC 무선조종 RC카 (1등, 10명) ▲i20 WRC 모형차 (2등, 30명) 등 총 40명에게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상범 LGD 사장 "협력사와 함께해야 성공"

협력사 방문 '동반성장' 앞장

LG디스플레이가 상생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21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LG디스플레이 임원진과 함께 경기도 양주시의 오성디스플레이를 찾아 현장 개선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협력사 직원들의 애로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2차 협력사 방문은 LG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반성장 활동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이라는 상생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경영 역량 강화 △열린 소통 등을 감안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힘써왔다.

특히 2, 3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도 1차 협력사와 동일한 동반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사장(가운데)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2차 협력사 오성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이날 현장 방문 후에는 오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뉴옵틱스, 신성델타테크 등 경기북부 지역 5개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해 협력사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사장은 "LG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바탕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있었으며, OLED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서도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공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서로 간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조한진 기자 hjc@

진에어, 승무원 180명 채용
27일까지 온라인 서류접수

진에어(대표 마원)는 180여명의 남녀 객실승무원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12월 예정된 인천~호놀룰루 장거리 노선 취항과 항공기 추가 도입 등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다.

진에어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채용 안내 사이트(jinair.career.co.kr)를 통해 남녀 신입 객실승무원의 상세 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온라인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 지원 시 ▲최소 학력 및 신장의 제한은 없으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영어와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180여명의 채용 인원은 객실 서비스 훈련 및 안전 훈련 등을 거쳐 올 12월경부터 현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아시아나항공, 복날 전직원에 삼계탕·커피 쏜다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썸머 쿨 서비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하계 바캉스 시즌인 7~8월 성수기간, 안전 운항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무더위를 이겨내고자 매년 썸머쿨 서비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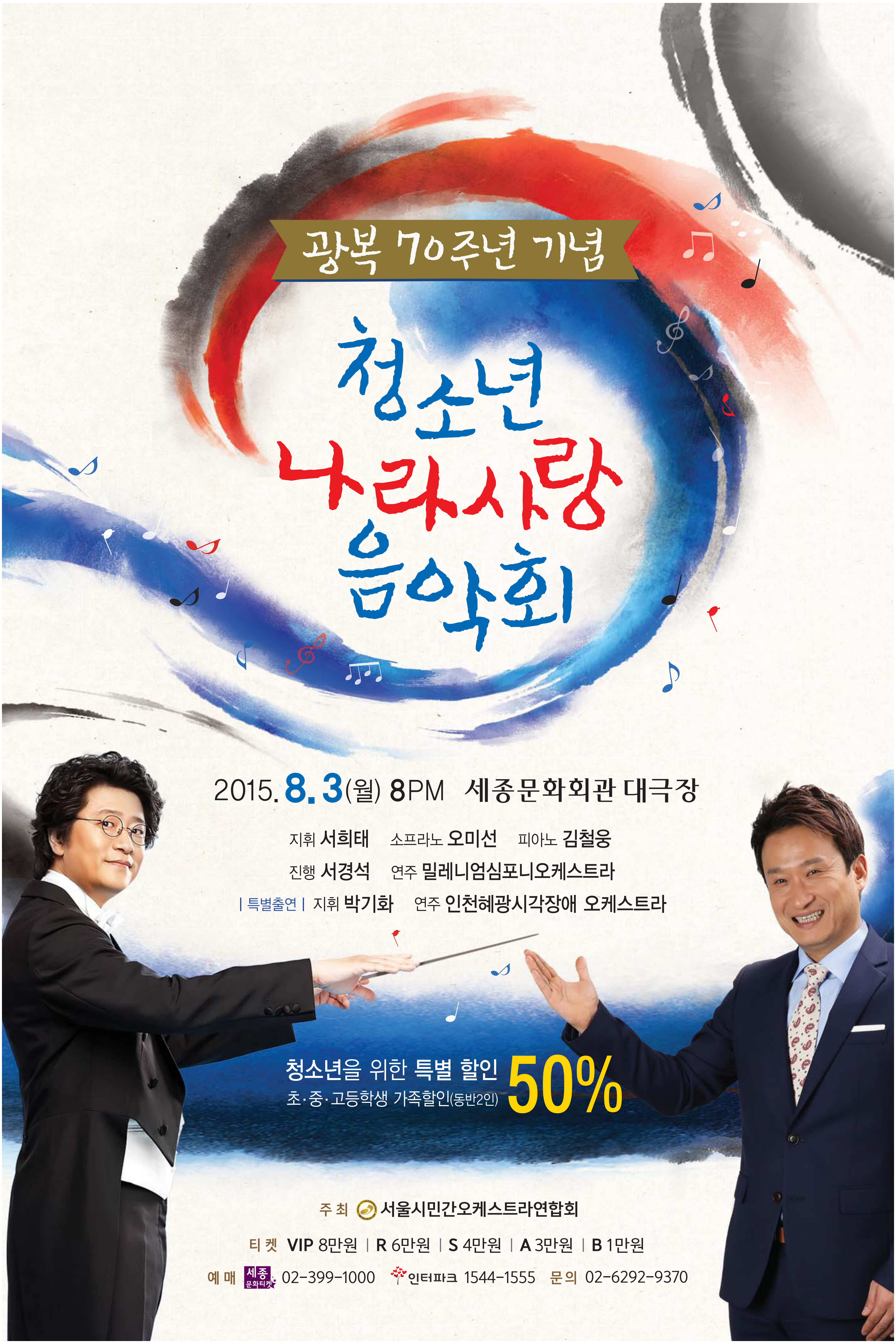
올해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객(예약과 공항서비스), 화물, 정비, 운항, 캐빈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시아나와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과 팥빙수, 슬러시 등을 제공한다.

각 본부별 자체 이벤트도 병행한다. 초복, 중복, 말복 일에는 삼계탕과 함께 사내카페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커피를 제공한다.



박수상 아시아나 경영지원팀장은 "직원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하계 바캉스 성수기 동안 고객을 더욱 편히 모시기 위해 안전 운항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광복 70주년 기념
청소년
나라사랑
음악회
2015. 8. 3(월)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서희태 소프라노 오미선 피아노 김철웅
진행 서경석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 특별출연 | 지휘 박기화 연주 인천혜광시각장애 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할인
초·중·고등학생 가족할인(동반2인)
50%
주 최 서울시민간오케스트라연합회
티 켓 VIP 8만원 | R 6만원 | S 4만원 | A 3만원 | B 1만원
예 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6292-9370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사내 모델들이 SK텔레콤의 클럽T키즈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자녀 양육, 앱과 함께하세요"

SKT '클럽T키즈' 출시

SK텔레콤은 부모와 자녀에게 새로운 생활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클럽T키즈'를 22일 선보인다.

클럽T키즈는 안전·안심, 교육, 쇼핑 등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용 '케어 서비스 플랫폼'과 메시지, 놀이 등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아이용 '또래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부모를 위한 케어 서비스 플랫폼은 클럽T키즈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제공된다. 앱 안에는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서비스와 체험 학습 프로그램 '고고씽', 자녀 간식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부모는 고고씽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예술 단체 등에서 어린이를 위해 운영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요리, 미술관, 박물관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위치와 활동 사진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유기농 식품 업체 마켓컬리와 제휴를 통해 자녀 간식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래 커뮤니티 플랫폼은 'T키즈폰준2' 단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메시지, 놀이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SK텔레콤은 T키즈 전용 메신저 '준 톡'에서 그룹 내 친구끼리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룹톡' 기능을 추가했다. 아이의 흥미 유발을 위해 캐릭터 키우기, 배지 모으기 등 재미요소도 강화됐다.

고객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준 박스' 앱을 업그레이드해 클럽T키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녀의 T키즈폰 준2 단말은 별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삼성電 생활가전, 美 소비자 선택 1위

'JD파워' 평가서 4개 1위

삼성전자가 미국 최고 권위의 시장조사업체인 'JD 파워'의 2015년 세탁·주방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다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드럼·전자동·의류건조기 등 전체 세탁기 부문 평가에서 1위에 오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JD 파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총 11개 세탁·주방가전 부문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삼성전자가 드럼세탁기 △전자동세탁기 △의류건조기 △프렌치도어 냉장고를 1위로 평가했다. 'JD 파워'는 1년에 한 번 최근 2년간 가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 제품별 △사용성 △다양한 기능 △성능 △가격 △디자인 △서비스 등 총 6개 요소의 만족도를 평가해 공개한다.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는 전체 평균 점수인 827점을 크게 웃도는 846점을 획득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자동세탁기도 평균 점수(811점)보다 높은 836점으로 총 9개 브랜드 중 1위에 선정됐다.

의류건조기 역시 849점으로 총 10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글로벌 냉장고 1위의 삼성전자 냉장고는 프렌치도어 부문 평가에서 평균 점수인 820점보다 21점, 2위 보다는 13점이나 높은 841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박병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평가는 삼성전자가 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배려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

한화큐셀, 인도 공략 본격화

중부 텔랑가나주 2개 지역에 148.8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한화큐셀이 건설한 영국 케임브리지 스토브리지 24.3MW 태양광 발전소. /한화그룹 제공

한화큐셀은 인도에 148.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70MW의 모듈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회사 리뉴파워와 인도 현지에 합작법인을 세우고 인도 중부의 텔랑가나주의 2개 지역에 총 148.8M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사측에 따르면 해당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약 2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인도의 5만3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한화큐셀은 내달에 공사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발전소 건설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화큐셀은 인도 아다니그룹에 70MW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큐셀이 공급하는 모듈은 아다니가 내년 2월까지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에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전량 사용될 예정이다.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성장세가 예상되는 인도 태양광 시장에서 2건의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한화큐셀은 인도 태양광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한화큐셀은 인도 태양광 시장에서 역량을 강화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모디 정부는 2020년까지 100G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태양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인도 다운스트림 사업 진출로 일본·미국·유럽·중국 등에 집중돼 있던 사업영역을 신흥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태양광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대중소 기업 동반 로드쇼'에서 박은균 코트라 선전 무역관장(왼쪽 6번째), 왕보 화창그룹 부총감(왼쪽 5번째), 강재동 큐앤솔브 이사(왼쪽 1번째), 정대근 엔비레즈 대표(왼쪽 9번째)가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T, 中선전서 코트라와 IT로드쇼

중소 협력사 4곳 참여

SK텔레콤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중국 IT 산업의 메카인 '선전'에서 라이프웨어 브랜드 'UO'의 협력업체들과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중소 기업 동반 로드쇼를 21일 개최한다.

본 행사는 중국 최대의 IT유통 단지인 화창베이를 활용해 SK텔레콤의 라이프웨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과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화창베이는 오프라인 유통점 15만개, 하루 방문객 50만명으로 중국 IT 제품 유통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곳에 위치한 화창그룹과 사이거그룹은 화창베이의 양대산맥으로 중국 IT 유통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고, 폭넓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로드쇼에 참가하는 기업은 이노아이오(스마트빔), 엔비레즈(에어큐브), 큐앤솔브(솔라스킨), JSD로봇(알버트) 등 4개 기업으로 이들은 화창그룹과 사이거그룹, 협력사 등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중국 진출을 구체화한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T몰에서 스마트빔 등 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주 열렸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상하이에서도 드래곤스타(중국 내 애플 프리미엄 유통업체)와 스마트빔의 유통망 전시·판매 대행 협약, 중국전자상회와의 UO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또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국 고객에 UO 브랜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중소 협력사들과의 공동 해외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

고객 맞춤형 TV 홈쇼핑 시대 열린다

KTH '맞춤형T커머스' 선봬 TV청구서 간편결제도 도입

시청이력 등 빅데이터 분석 가구별 다른 쇼핑화면 전송



K쇼핑 일반방송 송출 화면. /KTH제공

시청자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TV홈쇼핑 시대가 열리고 있다.

KTH는 21일 서울 세종로 KT광화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규 서비스인 '고객 맞춤 T커머스'와 'T커머스 간편결제'를 소개했다.

고객 맞춤 T커머스는 방송채널과 VOD 시청 이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반 가구 ▲20~50대 초반 여성 중 영유아 자녀 보유 가구 ▲50대 이상 가구 등 3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가구에 서로 다른 쇼핑화면을 전송하는 형태다.

같은 채널이라도 일반 가구에는 생활용품 쇼핑 프로그램, 영유아 자녀 보유 가구에는 유아·주방용품, 50대 이상 가구에는 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쇼핑 정보가 제공된다.

K쇼핑은 신용카드 등 사전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선보인다.

신용카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TV간편결제'와 TV 셋톱박스 IC카드 리더기에 신용카드 등을 꽂아 결제하는 'IC카드 결제', 은행계좌와 연계된 T커머스 계좌에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TV머니' 등 5가지 형태다. K쇼핑은 하반기 IPTV 요금고지서에 쇼핑금액을 통합 과금하는 'TV 청구서 결제' 방식도 도입한다.

아울러 하반기 KBSN 채널과 함께 실시간 채널 연동형 T커머스 서비스도 선보인다. TV 시청 중 해당 프로그램 쇼핑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야구 중계방송에 유니폼이나 배달 먹거리 상품을 노출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90억원 규모였던 T커머스 시장은 올해 2500억원, 2016년 7000억원, 2017년 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은 최근 신규 사업자들이 진출하면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2년 8월 KTH가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후 2013년 10월 아이디지털홈쇼핑이 진입했다. 올해 1월 드림커머스와 SK브로드밴드를 시작으로 TV홈쇼핑사인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CJ오쇼핑이 진출하면서 10개 사업자 중 7개 사업자가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신세계그룹과 벼룩시장·알바천국 등을 운영하는 미디어윌 등 3개 사업자가 추가로 방송을 시작한다.

T커머스의 기반이 되는 IPTV는 지난해 가입 가구 10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1300만여 가구가 가입했다.

KTH는 현재 올레TV 등 5개 IPTV 사업자와 연계해 전체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의 85% 선인 13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KTH는 올해 내놓은 차별화 전략을 위한 신규 서비스 도입에 100억원, 내년 자체 방송 스튜디오 설립 등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상품 비중을 80% 이상으로 채우고 수수료는 27~28%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기존 홈쇼핑 수수료가 35%인 점을 감안할 때 8%포인트 저렴하다.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영 사장은 "홈쇼핑 문턱이 높아 진입하지 못했던 제조사와 공급자들이 유입돼 80% 정도되는 만큼 중소기업과 함께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체적으로 고객센터를 따로 만들어 애로사항을 처음부터 없애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가난 대물림 끊는다"… CJ도너스캠프, 10주년

누적 기부금 215억원 13만여명 교육 등 후원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 돼서는 안됩니다."

이재현 CJ회장의 나눔 철학으로 시작된 청소년 교육후원 프로그램인 CJ도너스캠프가 21일로 출범한지 10주년을 맞는다.

CJ도너스캠프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10년 간 '꿈키움 창의학교' 등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복지환경 개선사업을 펼쳐온 온라인 기부 플랫폼이다. 누적 기부금은 215억원으로 지금까지 13만 여명의 아동·청소년을 후원해 왔다

IMF 경제난으로 가정 해체가 늘고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급증한 1999년 CJ그룹은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만들어 소외 아동·청소년들을 지역 공부방을 통해 후원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 이재현회장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재 50억원을 출현하고 CJ나눔재단을 설립, CJ도너스캠프를 출범했다.

CJ도너스캠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초의 온라인기부 플랫폼이다. 기부자가 공부방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해 후원하면 CJ그룹이 같은 금액을 더해 기부금을 2배로 키우는 매칭펀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모든 기부 과정은 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재 CJ그룹 임직원 90%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부방 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CJ그룹 민희경 공유가치창출(CSV) 경영실장은 "10주년을 맞은 CJ도너스캠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재현 회장의 뜻에 따라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래 주역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꿈을 키우는 '꿈지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순하리 대세 굳히기… '복숭아' 출시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지난 3월 출시한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에 이어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를 21일 출시했다.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는 복숭아 과즙이 첨가된 소주 베이스 칵테일로 용량은 360ml에 알코올 도수 14도다. 복숭아의 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출고가는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와 같은 962.5원이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순하리를 전국으로 확대 판매하기 시작하고 최근 원활한 공급이 가능케 됨에 따라 유자맛에 이어 복숭아맛까지 제품군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소주 베이스 칵테일 시장의 성장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소주 베이스 칵테일은 주류 시장 전반에 불고 있는 저도화 트렌드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매일유업, 흰 우유 수출… 中 본격 공략

우리나라 흰 우유(살균유)가 마침내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1일 전북 고창군 소재 상하공장에서 '한국산 흰우유 중국 수출 기념식'을 갖고 국내 유가공업체로는 최초로 중국 수출을 위한 흰우유(살균유)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흰우유(살균유) 1차 수출분은 중국 수출용 살균유 규정에 적합한 검사를 마친 뒤 이날 군산항을 출발, 22일 중국 산동성 쓰다오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국 식품안전검사국의 현지 검사를 한 차례 더 받은 후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매일유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흰 우유 제품은 180ml, 750ml 2종이다.

올해 말까지 600톤(80만불 수준)을 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2016년 3000톤 이상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롯데 신동빈 형장 경영 행보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점검



롯데그룹은 21일 신동빈(61·사진) 회장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롯데백화점 중소기업상생관 드림플라자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장인 부산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 추진 상황과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상생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현장경영의 일환이다.

롯데마트, 中 4곳 매장 철수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중국 산둥성 내 매장 4곳을 폐점한다.

20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경영보'이 최근 기사를 인용해 칭다오시 2곳, 웨이팡시와 웨이하이시에 서 각 1곳 등 총 4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철수 원인에 대해 현지 유통업체와 알리바바, 진둥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BBQ, 상명대와 협약 체결

제너시스BBQ그룹(회장 윤홍근)의 글로벌푸드아트수도직업전문학교(GFAC)가 상명대와 계약학과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GFAC 학생들은 2년간 조리 실습, 외식업계 인턴십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 후 제너시스BBQ그룹에 입사해 근무하면서 상명대 호텔외식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심하고 아이 맡기는 '한샘 어린이집'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⑳ 한샘

HANSSEM



한샘 최양하 대표가 한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한샘은 위탁이 아닌 '직영체제'로 운영하며 한샘 연구소 내 특별팀도 신설해 어린이집을 설계·시공했다. /한샘 제공

'위탁' 아닌 '직영체제' 운영 어린이집 교사도 한샘 정직원

아동발달 특성반영 공간 설계 교육전문가 초빙 특강도 진행

동료들보다 30분 늦은 출근 시간인 오전 8시30분, 온라인사업부 김 모 과장은 두 아이를 안고 회사로 출근한다.

세 아이의 엄마인 김 과장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없어 세 아이를 집 근처 친정에 맡기고 출근,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도 친정엄마에게도 미안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사내 어린이집이 문을 연 이후 김 과장은 친정에서 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있다. 매일 아침 두 아이 등원과 출근 준비로 바쁘지만 매일 아이들을 볼 수 있어 김 과장은 아이들을 데려온 후 얼굴에 늘 미소가 감돈다.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업무 중에 마음만 졸였지만 어린이집에 맡기고 난 후로는 잠깐씩 들여다볼 수도 있어 마음도 놓인다.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최양하)은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한샘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한샘은 회사의 특성상 여직원들의 비율이 높다. 회사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은 여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은 서울시 방배동 한샘 본사 2층에 약 130평 규모로 마련됐다. 만 1세에서 4세까지의 어린이가 대상으로 현재 49명의 임직원 자녀를 돌보고 있다.

한샘 측에 따르면 개원 3년째인 현재 이용 임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한샘 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직영체제'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내 어린이집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반면 한샘은 어린이집 구상 단계부터 운영안, 내부 설계까지 한샘이 책임지고 운영한다. 근무 중인 어린이집 교사도 모두 한샘의 정직원이다.

한샘 측은 "어린이집 보육과 운영에 관해서는 구상 단계부터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한샘이 추구하는 철학을 보육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했다"며 "한샘 보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개성을 발견하고 사회성을 키워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샘 어린이집은 '부모-아동 성장 프로그램', '아동 성장 관찰 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자녀를 둔 임직원들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학부모 특강을 열고 있다.

또 한샘 연구소 내 관련 특별팀을 운영해

한샘의 복리후생

제도	세부 내용
한샘 어린이집	직영체제 어린이집으로 한샘 본사가 자녀교육을 책임.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한샘의 정직원.
가족의 날	연간 1회 2일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
탄력근무제	자녀를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내는 워킹맘을 위한 제도. 8시~10시 사이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
일일호프	제조본부 여성회 주관, 임직원 친목도모를 위한 간이 호프집. 수익금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공간을 설계·시공했다.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보육실 내의 가구는 한샘의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와 동일 사양으로 제작됐다. 양호실용 침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한샘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연구원들이 자체 디자인 후 사내 개발지원팀 등 유관 부서와의 협의 아래 제작됐다.

어린이집 가구 설계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한샘의 기업 슬로건은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이다. 우리는 이를 사내 어린이집에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설계된 한샘 어린이집은 미니 도서관뿐만 아니라 로비와 교실을 잇는 통로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시설들로 이뤄져 있다. 또 아이들이 뛰놀다 다치지 않도록 수납장 손잡이를 자석 탈·부착 식으로 제작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한 임직원은 "최고의 시설에서 내 아이가 교육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근무 중에 생기는 걱정도 많이 덜었다"고 밝혔다.

한샘어린이집 이소은 원장은 "아이의 어린 시절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기"라며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즐거워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공동기획 : 여성가족부 metro

'가족'의 행복이 '기업'의 행복

가족 휴가 '가족의 날' 제도 호평 기혼 여성직원엔 '탄력근무제'도



'일일호프'를 하며 친목을 쌓고 있는 한샘의 임직원들. 1년에 1회 제조본부 여성회 주관으로 '일일호프가' 열리며 수익금은 전부 사회공헌에 쓰인다. /한샘 제공

한샘(대표 최양하)이 임직원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한 '가족의 날' 제도가 호평을 받고 있다.

가족의 날 제도는 연간 1회 2일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해 가족 동행 휴가를 권장하는 제도이다. 사내에서는 '가족 휴가'로 불린다. 올해로 도입한지 5년이 됐으며 지난해는 임직원의 91%가 가족 휴가를 사용했다.

한 임직원은 "가족 휴가가 생긴 지 얼마 안됐지만 정착이 매우 빨랐다. 모든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가족 휴가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샘이 '가족의 날'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를 자체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매우 좋음' 이었다. 한샘 측은 "우리 기업의 슬로건은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가정이 될 때 화목·행복·성공도 뒤따른다. 직원의 행복과 화목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샘은 기혼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운영 중이다. 8시~10시에 출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제도로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는 워킹맘에게 인기다. 현재 한샘의 사내 '한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워킹맘 49명은 모두 탄력근무제를 이용 중이다. 한샘은 또 직원의 복리 후생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1년에 한번 '제조본부 여성회' 주관의 '일일호프'를 열어 모든 임직원이 친분을 쌓는 시간을 가지며 수익금은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홈플러스 "올 여름은 나눔 바캉스 떠나요"

전 점포 '나눔 봉사단' 운영 전국서 5000여명 확대 계획

고객 1명 동참할 때마다 e파란재단 통해 5000원씩 소외층 유방암 치료 지원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고객 가족과 직원이 함께 하는 '나눔 플러스 봉사단'을 전국 140개 전 점포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나눔 플러스 봉사단'은 초·중·고 자녀가 있는 2인 이상 가족과 홈플러스 임직원이 함께 점포 인근 지역의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돕는 지역사회 봉사 커뮤니티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점포에서 봉사단을 시범 운영해 지금까지 총 218가족 495명의 가족과 함께 43회에 걸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7월부터는 '나눔 플러스 봉사단' 활동을 전국 5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은 "창립 초기부터 연간 4만 시간 이상 체계적으로 실시해온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고객 가족으로 확대함으로써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는 있으나 기회나 정보 등의 부족으로 실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고객과 그 가족들에게 봉사활동의 장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로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봉사단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봉사단 참가 고객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녀들이 자연스레 나눔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높임말을 쓰는 습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사회성 증진 등 평소 기대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됐다. 앞으로도 봉사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동참 가족에게 자원봉사인증서 발급과 함께 문화센터 수강료 10%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고객 1명이 봉사활동 1회를 실시할 때마다 'e파란재단'을 통해 5000원씩 소외계층의 유방암 치료비를 기부한다.

'나눔 플러스 봉사단'단은 이달 31일까지 전국 홈플러스 문화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이달 말부터 내년 5월까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연 4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홈플러스 김인숙 사회공헌본부장은 "고객, 지역사회, 홈플러스 임직원과 함께 하는 나눔 플러스 봉사단은 연중 상시 꾸준하게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업의 특성을 살려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해 고객과 협력회사, 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올해 1월 서울 영등포 당산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한 '나눔 플러스 봉사단'이 어르신에게 안마를 해주고 있다. 이날 봉사단은 어르신 말벗, 식사 도우미, 청소 등을 했다. /홈플러스 제공



강강술래 '해피아워' 알뜰 고객 몰린다

특정시간에 2+1 덤 증정 계모임·회식 손님에 인기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일정시간 특정메뉴를 주문하면 덤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를 진행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붐비는 시간을 피해 알뜰하게 계모임이나 회식 등 단체모임을 갖는 손님이 몰릴 정도다.

21일 강강술래에 따르면 여의도점(02-785-6692)은 주중(월~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술래양념구이정식을 2인분 주문 시 술래양념구이 3대를, 한우광양불고기정식을 2인분 시키면 한우불고기 150g을 덤으로 준다.

청담점(02-3443-3392)은 이달 30일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술래정식·민속양념정식을 2인분 시키면 고기 1인분씩을 추가 제공한다.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는 본갈비·술래양념·일품양념·민속양념 구이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더 주며, 한우갈비살 주문 시 테이블당 한우육회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오후 9시 이후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신림점(02-886-9233)은 강강·술래양념구이를, 시흥점(02-808-1888)은 강강·술래·한돈·돼지양념 구이메뉴를 2인분 주문시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또 오후 8시30분 이후에 홍대점(02-3143-6635)은 한돈·돼지·술래양념·쇠고기한판을, 늘봄농원점(031-965-2300)은 왕양념갈비·강강·술래·한돈·돼지양념 메뉴 2+1 행사를 진행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中 인센티브여행단체, 내년 최대 규모 항공편 방한

관광公, 1만5000명 유치 확정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남경중맥과기발전유한공사(南京中科技展有限公司) 인센티브여행단체 1만5000명이 2016년 5월 중 3차례에 걸쳐 항공편으로 방한을 확정지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항공편으로 방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여행 단체다. 국내에서 4박 5일간 머무를 예정이다.

이번 유치는 메르스 영향으로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에 큰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예상된다.

관광공사는 향후 동 단체의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답사를 오는 8월부터 3~4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지난해 방한한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단체.

또한 비자신청과 대규모 인원의 편리한 입국 수속을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영행사, 관광활동 지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CSR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광공사 코리아MICE뷰로 김기헌 실장은 "이번 중국 남경중맥과기발전유한공사 인센티브단체 방한 확정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한국 관광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이 안전한 인센티브 여행 목적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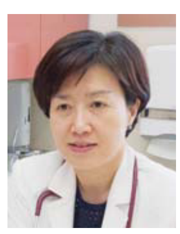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 환자, 폭염에 여름나기 주의보

고혈압-찬물샤워·격한 운동 금물 당뇨-빙과류 등 고당분 간식 자제 만성신부전-하루에 물 1ℓ 섭취

올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다. 7월 중순을 지나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리며 본격적인 여름 더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이 발생하면 고혈압·당뇨병·만성 신부전 등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하버드의대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평균보다 1도가 오르면 당뇨병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약 10%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강덕희(사진) 교수는 "만성 신부전 환자는 과도한 수분 섭취, 칼륨 섭취가 치명적이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려 상대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는 것도 콩팥 기능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분 섭취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혈압 환자들은 덥다고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몸이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에어컨 바람을 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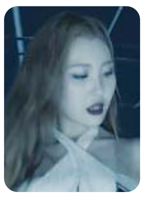
또 더운 날씨로 인해 시원한 청량음료나 빙과류, 과일 주스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분 함량이 많으므로 당뇨병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하루에 물은 1ℓ 이내로 섭취하도록 하고 물을 마시고 붓는 증상이 심할 때는 주치의 상담이 필요하다.

/최치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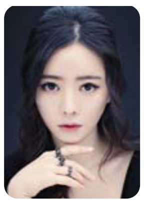
star bag

멤버 선미 티저 공개



4인조 밴드로 컴백하는 **원더걸스**가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21일 공개한 영상은 베이스를 연주하는 선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원더걸스는 멤버 선예와 소희가 탈퇴하고 대신 선미가 다시 합류해 4인조 밴드 체제로 내달 3일부터 활동할 계획이다.

여전사 변신 액션 도전



배우 **홍수아**가 영화 '포졸'에 캐스팅됐다고 소속사 웰메이드쇼21이 21일 밝혔다. '포졸'은 조선 최고의 검객과 역모를 꿈꾸는 자의 대결을 그린 액션 사극 영화다. 홍수아는 극중 윤서영 역을 맡았다. 남성들을 유혹하는 기생이면서 동시에 여전사인 캐릭터다.

조용히 현역 입대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21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유노윤호는 이날 경기도의 한 육군 훈련소에 입소해 군 생활을 시작했다. 5주 동안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뒤 2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다. 2017년 4월 20일 전역 예정이다.

만삭 화보로 선행



배우 **한혜진**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위해 만삭의 몸으로 화장품 화보를 촬영했다. 한혜진은 "아이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란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하는 선행이라 생각해 주저 없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멘토 나서



배우 **고준희**가 오는 10월 16~19일, 4일 동안 열리는 제10회 아시아 국제청소년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고준희는 영화제 기간 동안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각종 행사 참석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동할 예정이다.

몸매 부각, 유명세 따른 세금이라 생각

'더 바디쇼' **유승옥**



올 상반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운동하는 여자'다. 뛰어난 몸매를 앞세운 운동 비법으로 여성의 건강미를 조명하면서 운동이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많은 여성 트레이너와 피트니스 모델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 선두에 배우 겸 모델 유승옥(26)이 있었다.

유승옥은 지난해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커머셜 모델 부문에서 동양인 최초로 TOP5에 들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SNS에 퍼져나갔다. 언론도 앞다퉈 보도했다. 2015년 '유승옥' 열풍이 시작됐다. 이후 방송계에 입문해 각종 예능과 드라마에서 활동했다.

20일 종영된 국내 최초 여성 바디 전문 프로그램인 '더 바디쇼'는 유승옥에게 의미가 크다. 첫 버라이어티쇼 MC를 맡았고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전문분야인 운동을 전담했기 때문이다.

"머슬마니아로 유명해지기 전 이미 섭외가 됐어요. 여진 언니, 레이디제인 언니가 잘 이끌어줘 별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운동 방법을 소개하는 '텐미닛' 코너는 소중한 경험이죠. 실제로 그걸 보고 따라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더 바디쇼'를 통해서 건강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몸짱으로 유명해진 유승옥이지만 사실 자신의 몸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다. 튼실한 허벅지 때문에 늘 하체를 가리는 옷을 입었고, 지방흡입 시술까지 했다. 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왔다. 고민을 해결한 것은 운동 덕분이었다.



"저와 발레 선생님, 트레이너가 함께 만든 '발레이션'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특별한 기구 없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죠. 몸치인 제가 할 정도니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더 바디쇼'에서도 '발레이션'을 위주로 가르쳤어요. 만족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죠. 내 몸을 노력으로 디자인한 거니까요."

하체 콤플렉스 직접 만든 '발레이션'으로 극복
걱정 많으셨던 부모님, 지금은 든든한 지원군
한국인 첫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되는 것이 꿈

유승옥은 연기에도 도전하고 있다. SBS '도도하라'의 단역을 시작으로 MBC '압구정백야'에 깜짝 출연했고 최근에는 웹드라마 '소녀연애사'에 출연했다.

"재미있는 경험이죠. 극중에서 엽기 표정을 잘 짓는데 작가님이 못생기게 나온다고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꿋꿋하게 했어요. 추울 때라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왔는데 댓글에서 트렌스젠더 아니냐고 하더라고요."(웃음)

부모님은 연기자와 모델을 꿈꾸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부모님의 바람대로 교원자격증까지 땄다.

"제가 상처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인기를 얻기 시작한 초창기에 제 몸의 특정부위를 부각한 사진과 영상들이 쏟아져나오자 충격까지 받으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겠느냐면서 절 응원해주세요. 저 역시 유명세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함을 보여주려는 건데 섹시함으로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거죠."

욕심이 많다며 예능도 연기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유승옥은 한국인 최초의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channel
THE
맛있는 One샷
푸드트럭을 타고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요리배틀!
t.cast
SCREEN
DRAMAcube
FOX
FX
매주 목요일 밤 11시 E채널

늦깎이 배우? 재미있으니까 버틸수 있어요



신인 배우 정윤희

무역학과 졸업 앞두고도 포기할 수 없었던 꿈
작은 역이라도 광고·드라마 통해 연기력 쌓아와
8월, 연극 '아리랑 랩소디'… 계속 연기할 것

신인 배우 정윤희(27·사진)는 대중에게 낯선 이름이다. 몇 편의 광고에 출연했고 드라마에서도 작은 역할을 맡았지만 배우로서 이름을 알리기에는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 나이로 봐도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출발이다. 그럼에도 정윤희는 연극, 드라마, 영화 모든 문을 두드리며 작은 역할부터 차근차근 배우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

부산 출신인 정윤희에게 배우가 되는 길은 멀기만 했다. 어린 나이에 서울까지 올라와 오디션을 볼 방법이 없었다. 부모님도 딸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를 바랐다. 경성대학교에 입학하면서도 정윤희는 연극영화학이 아닌 무역학을 선택했다. 무역 일을 한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또래 친구들처럼 안정적인 미래를 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 졸업 직전 우연히 광고에 출연하면서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끄집어냈다.

처음 들어간 소속사에서 걸그룹을 준비했다. 하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음반이 나오지 않자 과감하게 소속사를 나왔다. 매니저도 없이 오디션을 다니기 시작했다. 실패도 많았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타고난 긍정적인 성격은 정윤희가 지닌 강점이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오디션 결과만 기다리다보니 제 삶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편안한 마음으로 오디션을 보러 다녀요. 붙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금방 잊으려고 하죠."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있다. 정윤희는 지금 배우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걷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넌버벌 공연을 위해 중국을 다녀왔다. 오는 8월에는 연극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찾아가는 유랑극단 공연인 '아리랑 랩소디'를 통해서다. "연극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500석 정도 되는 극장에서 하는 공연이라 부담도 있죠. 하지만 재미있게 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배우로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정윤희는 누구보다 단단한 발걸음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배우가 특수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직업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연기가 재미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어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만화보다 만화 같은 네 남녀

방송인 홍석천, 개그우먼 이국주, 걸그룹 AOA 멤버 지민, 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주헌 등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네 남녀가 출연한다. 만화보다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만날 수 있다. 이국주는 과거 겪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연을 털어놓는다. 또한 MC들과 게스트들은 각각 닮은 만화 캐릭터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운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최현석 셰프와 이연복 셰프가 출연해 짬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YG 패밀리의 단골 짬뽕집부터 중식계 숨겨진 고수가 만드는 옛날 짬뽕, 영업 시간 때문에 더욱 궁금한 전국 5대 짬뽕 식당 등이 공개된다.



◆ KBS2 '어셈블리'

오후 10시

진상필(정재영)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배달수(손병호)의 소식에 잠적한다. 야당은 진상필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한다. 박춘섭(박영규)은 진상필을 공천한 백도현(장현성)에게 당직 사퇴를 요구한다.



◆ MBC '밤을 걷는 선비'

오후 10시

도성에 벽서가 뿌려진 뒤 성열(이준기)은 귀(이수혁)가 음란서생을 찾기 전에 자신이 먼저 찾아내야 한다고 한다. 양선(이유비)은 수향(장희진)에게 왜 자신에게 사람을 붙였냐고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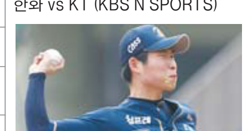
/정리=장병호 기자 solanin@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88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22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농촌드라마 오! 할매 (8회)	50 오늘부터 사랑해 (75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28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32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52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48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어셈블리 (3회)	00 밤을 걷는 선비 (5회)	00 가면 (17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셰익스피어 인 러브>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5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50 동행 (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특선다큐	40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갯마을> (재)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20 비정상회담 (55회) (재)	20 집밥 백선생 (10회) (재)	20 오늘 뭐 먹지? (62회)		20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	◆ 프로야구 (18:30) 넥센 vs LG (SPOTV+) KIA vs 삼성 (MBC SPORTS+) 두산 vs SK (SKY SPORTS) NC vs 롯데 (SBS SPORTS) 한화 vs KT (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12회) 55 JTBC 뉴스룸	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57회)	00 오늘 뭐 먹지? (61회) 30 현장토크쇼 TAXI (367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14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2회)		00 와일드 24: 태즈메이니아 섬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11회)	40 수요미식회 (26회)	00 유미의 방 (2·3회)	00 <순간포착!위험한 동물들> (3회)	00 무비스토커 (3회)	
22시			00 올리브쇼 2015 (25회)	00 항공사고 수사대 : 에어 크래쉬 (8회)	20 무비스토커:금주의 영화 (1회)	
23시	00 냉장고를 부탁해 최고의 빅 매치 (4회)	00 집밥 백선생 (10회) (재)	00 오늘 뭐 먹지? (79·2회)	00 <2차 세계 대전:대서양 전투> 연합군의 위기		
24시	30 비정상회담 스페셜 (55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2회) (재)	00 MAPS (3회)	00 미션 플루토: 명왕성을 향하여	30 더 인비트위너스 : 섹스온더비치	



강정호 팀내 입지 UP, 기회 잡았다



머서 6주 이탈… 유격수 선발출전 멀티히트 '합격점'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유격수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잡았다.

강정호는 21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 4타수 2안타 2득점 1볼넷으로 경기를 마쳤다. 시즌 타율은 0.275에서 0.278(237타수 66안타)로 올랐다.

강정호는 2회초 무사 1루에서 캔자스시티 선발인 오른손 투수 요다노 벤추라의 5구째 시속 97마일(156㎞)짜리 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전 안타를 쳤다. 5회초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다시 97마일(156㎞)짜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익수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2루타를 쳐 멀티 히트(1경기 2안타 이상)를 완성했다. 2경기 연속 멀티 히트이자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이날 피츠버그는 총 31안타(피츠버그 17안타, 캔자스시티 14안타)가 터진 난타전 끝에 10-7로 이겼다. 3연패 끝에 1승을 챙겼다.

강정호는 내야수지만, 유격수로 선발출전한 것은 6월14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이후 37일 만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유격수로 23경기를 뛰고 16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 3루수 출전 기록(49경기, 선발 출전 40경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당분간은 유격수로서 경기에 나설 전망이다. 주전 유격수 조디 머서의 부상 때문이다.

MLB닷컴은 21일 "머서가 무릎 부상을 했다. 6주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머서는 전날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에서 2회말 수비 도중 상대 주자와 충돌해 무릎을 다쳤다. 검사 결과 '왼 다리 타박상과 무릎 인대 손상' 진단이 나왔다. 클린트 허들 감독은 머서를 교체하며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강정호를 유격수로 보냈다.

강정호는 이날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2회말에는 실점 위기를 넘기는 호수비를 펼쳤다. 1사 만루에서 알시데스 에스코바르의 타구를 있는 힘껏 점프해서 잡아냈다. 5회말에는 무사 1루에서 2루수 닐 워커와 병살 플레이를 합작했다. 또 캔자스시티가 3점을 몰아치며 매섭게 반격하던 7회말 1사 1루에서 오마르 인판테의 땅볼 타구를 잘 잡아 병살로 처리하면서 공격 흐름을 끊었다. 3루수에 이어 유격수로서도 합격점을 받은 강정호는 허들 감독의 수비 불안을 완벽하게 불식시키면서 팀내 입지를 굳히게 됐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잭 존슨, 연장 접전 '클라레 저그' 영광

브리티시오픈 15언더파 우승

잭 존슨(미국·사진)이 연장 접전 끝에 제144회 브리티시오픈(디오픈) 골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존슨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 올드코스(파72·729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파 66타의 성적을 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존슨은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 마크 레시먼(호주)과 함께 연장전에 들어갔다. 1·2·17·18번 홀(이상 파4)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존슨은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언더파를 기록해 이븐파의 우스트히즌, 2오버파의 레시먼을 제치고 '클라레 저그'의 주인공이 됐다.

2007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존슨은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르며 우승 상금 115만 파운드(약 20억6000만원)를 받았다.

올해 마스터스와 US오픈을 석권한 조던 스피스(미국)는 공동 4위(14언더파)로 대회를 마쳤다. 재미동포 케빈 나(32)는 공동 58위(3언더파)에 그쳤다. /김민준 기자



정몽준 "내년 2월 FIFA 회장선거 출마하겠다"

"블라터, 아직 정신 못차려"

정몽준(64·사진)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차기 회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21일 "단순히 FIFA를 개혁한다기보다 FIFA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차기 회장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FIFA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했다는 점이다. FIFA의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혁의 대상인 제프 블라터 회장이 내년 2월 말까지 선거관리를 하면서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신을 아직 못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블라터 회장이 40년간 사무총장과 회장으로 있는 동안 함께 한 측근세력들도 모두 반성하고 그만둬야 한다"며 "그들이 남아있는 한 개혁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명예회장이 FIFA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서면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다. 플라티니는 그동안 블라터 회장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명예회장은 "FIFA회장은 유럽이 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FIFA가 부패한 것"이라며 "얼마든지 아시아 사람도 FIFA 회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FIFA 집행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 차기 회장을 뽑는 특별 총회를 열기로 했다. /김민준 기자

LPGA 태극 낭자들 '시즌 최다승' 도전

마이어클래식 24일 개막

한국 여자골프 군단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다승 기록 경신에 나선다.

최운정(25·볼빅)은 지난 20일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한국 선수들에게 시즌 11번째 우승컵을 안겼다. 이는 2006년과 2009년에 세운 한국 선수(교포선수 제외) 최다승 타이 기록이다.

여세를 몰아 코리아 군단은 24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골프장(파71·6414야드)에서 열리는 마이어LPGA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 우승 사냥에 나선다.

LPGA 투어 첫 승 감격을 이룬 최운정을 비롯해 '디펜딩챔피언' 이미림(25·NH투자증권), 세계랭킹 1위 박인비 등이 총출동한다.

시즌 4승 사냥에 나서는 박인비는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이 대회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는 각오다. 특히 박인비는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 메이저 4개 대회를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마라톤 클래식에서 최운정과의 연장 승부를 펼친 장하나(23·비씨카드)와 루키 백규정(20·CJ오쇼핑)도 출전한다.

/김민준 기자 mjkim@



최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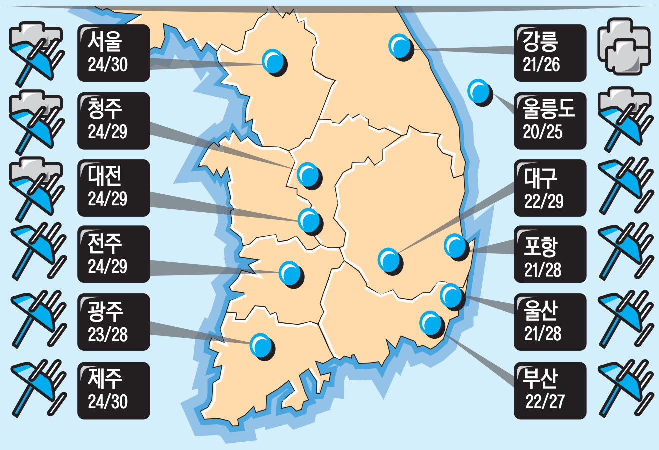


박인비

날씨

7/22 수 일출시각 05:27 일몰시각 19:4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2	6		8	9		
	9			4	5	8		
	5	8				3		1
1		6				7		5
7		3				6	2	
		1	8	5			7	
		5	7		2	1	9	

9			8	7	2	1		
	4	5	3					
8							9	
2			6			9		
	7	9				2	5	
		4			7			1
	3							7
					3	6	1	
		8	2	6	4			9

스도쿠 정답

5	3	2	6	7	8	9	1	4
6	9	7	1	4	5	8	3	2
8	1	4	9	2	3	5	6	7
9	5	8	2	6	7	3	4	1
1	2	6	3	9	4	7	8	5
7	4	3	5	8	1	6	2	9
3	7	9	4	1	6	2	5	8
2	6	1	8	5	9	4	7	3
4	8	5	7	3	2	1	9	6

9	6	3	8	7	2	1	4	5
1	4	5	3	9	6	7	8	2
8	2	7	5	4	1	3	9	6
2	8	1	6	3	5	9	7	4
6	7	9	4	1	8	2	5	3
3	5	4	9	2	7	8	6	1
5	3	6	2	8	4	9	1	7
4	9	2	7	5	3	6	1	8
7	1	8	2	6	4	5	3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New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Low Receiving Rate

<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극소수>

The new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 was applied from the 20th, but criticism is arising because there are less receivers than what was announced in the beginning.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tic front bench spokesman Kim Young Rok has stated that there will be only 60 thousand new receivers which is different from what the government has stated.

Also, only 11 thousand people among 420 thousand applicants receive it on time. Criticism is arising toward the government because they stated that there are few applicants and the evaluation for extra receivers will take some period of time.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첫날인 20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19길 신규보호 가정을 방문해 이모씨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고다어학원 Chris Kim(김윤관) 강사

20일부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애초 정부 발표보다 수급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애초 기초수급자 77만 명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첫 달 신규수급자는 최대 6만여명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나마도 제때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신청자 42만명 중 1만1000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청률이 저조하고, 신청자 중에도 추가 조사를 끝내려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정부의 핑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서 퇴출된 뒤 사업이 안풀려 답답합니다
어학에 소질… 무역분야 상담 능력 키우시길

durak1 남자 75년 11월 16일 양력 10시

Q 저는 외국상사에서 무역외판원으로 지내오다가 회사의 윗사람과 인맥으로 연결된 그룹에 끼어들지 못 한 죄로 그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퇴출당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랜 기간 출장생활을 해왔지만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니까 내 쫒은 샘입니다. 그 후 비슷한 업종의 회사에 들어갔으나 투자를 안 하면 6개월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 쇼핑몰을 갖고 물건을 소개하는 유통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지만 돈이 들어가고 성과는 더디며 과거 지인들과의 신뢰나 베풂이 없어서인지 제 말을 믿고 동조를 안 합니다.

A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직업을 갖고 남에게 이롭게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에게 맞고 사주8자와 운에서 승발 하는 직종의 직업을 가져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 선택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가 참 어려운 것이라 머리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머리복잡해지는 그 고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 빠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것을 모르고 섣불리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용두사미가 되거나 실패를 연속하여 삶이 어려워지고 망하기도 하지요. 학당귀인(學堂貴人)이라 해서 지성이 돋보이고 아이러니하게 사주에 이러한 효신(梟神)의 성분으로 인수가 왕(旺)하면 일찍부터 부모님 중 모친의 자애가 오히려 진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장년이 되어서도 모친으로 인한 근심이 끊이질 않아 더욱 골치가 아픈 사주구성이군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다고 하는 편인(偏寅)의 성분이 있으며 역마(驛馬)로 해외이주나 유학의 길과도 인연이 있는 사주라 어학분야에 소질이 있으며 길잡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운로가 식신(食神:내가 생해주는 오행) 편인(偏印:나를 생해주는 오행)에 재성(財星) 천을귀인(天乙 貴人)을 갖고 있으니 직업은 과거 경륜과 전공을 살리고 전문가로서 업체에 나가 상담이나 카운슬러 역할을 하거나 학원에서 또는 시간 강사로 일할 수 있는 무역이나 재무계통의 전문지식인이 되도록 하시면 노후까지 생활이 보장 됩니다. 상담을 해도 2016년 7월 지나야 마음의 화병이 풀리며 진로를 변경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2018년까지는 고생길이니 각오를 다지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2일 (음 6월 7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0년생** 조금씩 나아질 것 입니다. **72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84년생** 어떤 운이든 흐름이니 좋습니다.

소 **49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1년생**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73년생** 반드시 뜻을 이룰 것입니다. **85년생**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합니다. **62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합니다. **74년생**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86년생** 여행은 나중으로 미루세요.

토끼 **51년생** 금전거래를 하면 길합니다. **63년생**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봅니다. **75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87년생**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용 **52년생**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64년생**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76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수가 있습니다. **88년생** 감정 컨트롤에 신경을 쓰세요.

뱀 **53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65년생** 심신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7년생** 작은 소원도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지겠습니다. **89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말 **54년생**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마세요. **66년생**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90년생** 귀인이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습니다.

양 **55년생** 주위여건이 귀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67년생** 하는 일이 조금씩의 발전은 있겠습니다. **79년생** 자금회전이 어렵습니다. **90년생** 전전긍긍하면서 날을 보내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실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8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0년생**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92년생**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할텐데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함이 좋습니다.

닭 **57년생** 혼자의 힘으론 할 수가 없습니다. **69년생** 가족에게 고민을 얘기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81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93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개 **58년생** 무리하게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70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할 운입니다. **82년생** 집에 기쁨이 가득 할 것입니다. **94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을 떠나세요.

돼지 **59년생**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71년생**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83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5년생** 느긋한 행동 또한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 국가정책이 절실한 이유



이상화 교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하는 엄마들 마음 졸이는 시간이 또 왔다.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이 본격 시작됐다.

고등학생인 작은 아이도 어제부터 방학이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직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며 커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하루 종일 아이가 지낼 곳을 찾는 것이었다. 아이 점심까지 챙겨 줄 수 있는 학원을 찾고 앞 뒤로 학원을 넣으면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표가 가능하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방학동안 아이 실력을 키우겠다는 것보다는 아이를 돌봐줄 곳 찾는 이유가 더 컸다. 이제는 아이가 자라서 '일어나면 밥 잘 챙겨먹고~'한 마디 하고서도 맘 놓고 출근을 할 수 있으니 참 고맙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큰 것은 사회적 보육비를 사교육비로 부담하고 있는 이유도 크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아이들 사교육 시킬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교육비는 평균 39만2000원. 10명 중 4명은 4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3인 가구 (평균 출산률 1.2명을 감안했을 때) 최저생계비 136만원을 기준으로 30% 사교육비는 결코 만만치 않다. 여력이 안되면 아이들은 혼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

전일제와 장시간근로가 관행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늦은 퇴근과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은 맞물리는 문제다. 빈번한 야근과 시간 압박으로 동동거리는 일상을 살며 부모는 지친다. 나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은 외롭다.

"밤 늦게까지 엄마를 기다려야 하는게 너무 무서웠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 다녔어요. 놀이터도 가고, 옥상도 가고, 우리학교 운동장도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혼자서 무서우니까 집이…" 가출청소년 문제를 다룬 한 프로그램에서 가출팸을 이루고 사는 한 아이가 한 말이다. 아이랑 잘 살려고 아등바등 돈 벌며 사는데, 돈버느라고 아이가 버려지는 상황은 안된다.

'나홀로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동안 아이를 맡아 줄 사회적 서비스가 단단하게 마련되고, 아이들의 보육 시간대와 부모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업무 시간대가 조율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아아돌보미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5만4362명이 이용하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하지만 대기수요가 넘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예산과 돌보미 인력을 늘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육아는 엄마의 몫이 아니라 부모 공동의 책임이다. 육아에서 배제되었던 남성들이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꼭 이루어야 할 변화이다. 제도로 갖춰지긴 했지만 육아휴직 쓰는 남성은 아직 4.5% 수준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달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도 도입됐다. 문제는 '육아'를 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가다보면 길이 된다.

근로관행과 조건도 유연해 져야 한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총량이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다 (한국은 연평균 근로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하위다).

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부모 중 한명은 시간선택제로 일을 한다. 유연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무제 같은 방법도 일 가정 양립을 돕는 근무조건이 된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몫이 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일·가정 병행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과 노력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꼭 가져야 할 몫이다.

社說

'개혁'을 성사시키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가지 부문의 개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는 지금 개혁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어린 학생들이 입시지옥에 너무 시달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만성적인 차별대우를 받는 등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박 대통령도 임기중 이들 4개 부문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무어라고 논평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개혁안이 제시된 후에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이 분분하고 큰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다. 그런 까닭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법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사실 힘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이미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자신의 대화 노력이다. 미국처럼 대통령이 야당을 비롯해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청와대로 초청해서 설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때로는 반대의견을 수용하는 용기도 발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혁'을 임기중 기필코 성사시키겠다고 결심했다면, 스스로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국정과제를 성취하는 데 그 이상의 왕도는 없다.

여름철 질염 주의보… 세심한 청결관리 필요

건강 레이더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질염으로 병원을 찾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때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청결 관리가 요구된다.

질염은 질의 염증상태로 감염에 의한 질염 외에 폐경 이후 질점막이 얇아져 생기는 위축성 질염 등도 포함된다. 감염에 의한 질염은 원인에 따라 칸디다 질염,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등으로 나뉜다.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칸디다 질염이다. 여성의 75%가 평생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며 약 5~10%에서는 반복적으로 감염된다. 이 질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진균이다. 칸디다 질염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세균성 질염은 정상적으로 질 내에 살면서 질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없어지고 혐기성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한다. 질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은 한 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서식하기 어려워 재발하기 쉽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라는 원충에 의해 감염되는 질염이다. 이 질염은 성관계로 전파되기 때문에 성매개 질환 범주에 포함되며, 반드시 남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염은 무더운 날씨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후 젖은 옷을 오래 착용하는 경우 더욱 발생하기 쉽다.

여름철 질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려움증, 냄새, 분비물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야외활동 등으로 땀을 흘리거나 물놀이 후에는 민감부위의 환경이 습해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므로 젖은 옷은 바로 갈아입는 것이 좋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분실 신용카드, 타인이 결제시 책임은

생활 법률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전전긍긍하게 된다.

'누가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실제로 분실한 신용카드로 누가 썼다면 카드대금도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우선 도난·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 신용카드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부정사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했을 때 해당된다.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전문' 제22조 2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불허한 경우도 있다.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경우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관리 소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도난·분실의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게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회원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 전에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이홍원 기자 hong@

인사

■ 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보험정책부장 박태준 ▲금융정리1부장 장진영 △2급 승진 ▲보험정책부 팀장 손종현 ▲청산회수1부 팀장 한형구 ▲조사지원부 팀장 안병율 △3급 승진 ▲기획조정부 장영갑 ▲미래전략TF 이팽흠 ▲홍보실 진상호 ▲보험정책부 김선영 ▲창조경영실 강동훈 △4급 승진 ▲인사지원부 권민규 최우석 ▲금융정리1부 양순철 ▲청산회수기획부 손진현 신충섭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대중문화산업과장 하윤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이해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장 전성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과장 윤종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관리과장 김성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미술부장 이수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장 홍진근 △과장급 승진·전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장 김요일

■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여성기획국장 박미향 ▲여성조직국장 김민지

■ KBS
▲제작기술센터 보도기술국 총감독 곽천수 ▲제작기술센터 라디오기술국 총감독 홍성선 ▲제작기술센터 TV송출부장 장영상

■ 서울미디어그룹
▲총괄본부장 황석순 ▲마케팅국장 채민기

■ 연세대학교
△보직발령 ▲문과대학장 최문규 ▲생활과학대학장 겸 생활환경대학원장 고애란

www.jejuhotelnh.com

제주도에 특급호텔을 소유하시고
매월 따박따박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세요!
제주도 최고의 호텔운영률을 자랑하는 노형동!

입지조건 1등
호텔 브랜드 1등
투자 안전성 1등

1등호텔에 투자하십시오

GOLDEN TULIP
JEJU NOHYEONG-HOTEL

제주 공시지가 1위 제주의 명동, 노형동

높은 지가상승률(도시개발사업 진행)
제주에서 땅 값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년 가파른 지가상승률 기록

드림타워 프리미엄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38층) 개발(예정)의 프리미엄 효과

확실한 관광 수요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호텔 밀집지역으로 풍부한 관광수요 확보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015년 12월 31일 특별법 종료로 인한 프리미엄 효과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대한민국 호텔투자 최초로
신탁사의 자금관리를 통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호텔수익금 안심지급제도 실시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만의 PREMIUM6

- 실 투자금 대비 16% 수익률 지급 (대출이자 4% 포함)
- 확정수익률 10년간 지급 (신탁사 수익금 관리)
- 환매보장제 실시
- 중도금 무이자 (50%)
- 연간 10일 호텔 무료숙박권 제공 제주도항 왕복항공권 2매 제공
- 특급호텔(1박) 골프라운딩권(1팀) 무료제공

미국 호텔과 차원이 다른
유럽 최고의 호텔 브랜드

유럽 최고의 호텔그룹 루브르와
중국 최대의 호텔기업 진장이 만나 완성되는
골든튤립, 제주 호텔의 새로운 기준



- 루브르 호텔그룹의 1등급 브랜드 골든튤립 프리미엄
- 1등급 호텔의 아이콘 골든튤립 정식로고 사용
- 특급호텔만의 객실규모와 고품격 스위트룸 설계
- 골든튤립의 품격을 완성하는 일급 부대시설 조성

GOLDEN TULIP
JEJU NOHYEONG-HOTEL



분양문의 1644-8400

청약계좌 ▶ 청약금 100만원	
우리은행	1005-002-542904
예 금 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환불됨

객실등기분양 **총 352실**

경복아파트 사거리 · 아크로힐스논현 · 봉은사로 · 스포월드 · 라움 아트센터 · 선정릉역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홍보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8번지 진영빌딩 2층

시 행: 엔에이치산업개발 주식회사 NO HYOUNG INDUSTRY DEVELOPMENT CO.,LTD
책임준공: KR 경림종합건설(주)
신 탁: SAENGBO (주)생보부동산신탁
호텔운영: CITY ISLAND (주)시티아일랜드

※상기 계약자 혜택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에 명시된 개발계획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텔 운영사가 수익금(임대료) 지급을 보장하며, 생보부동산신탁은 자금관리업무(관리계좌 입금금액)에 한하여 투자 수익금 미지급 관련 투자 위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